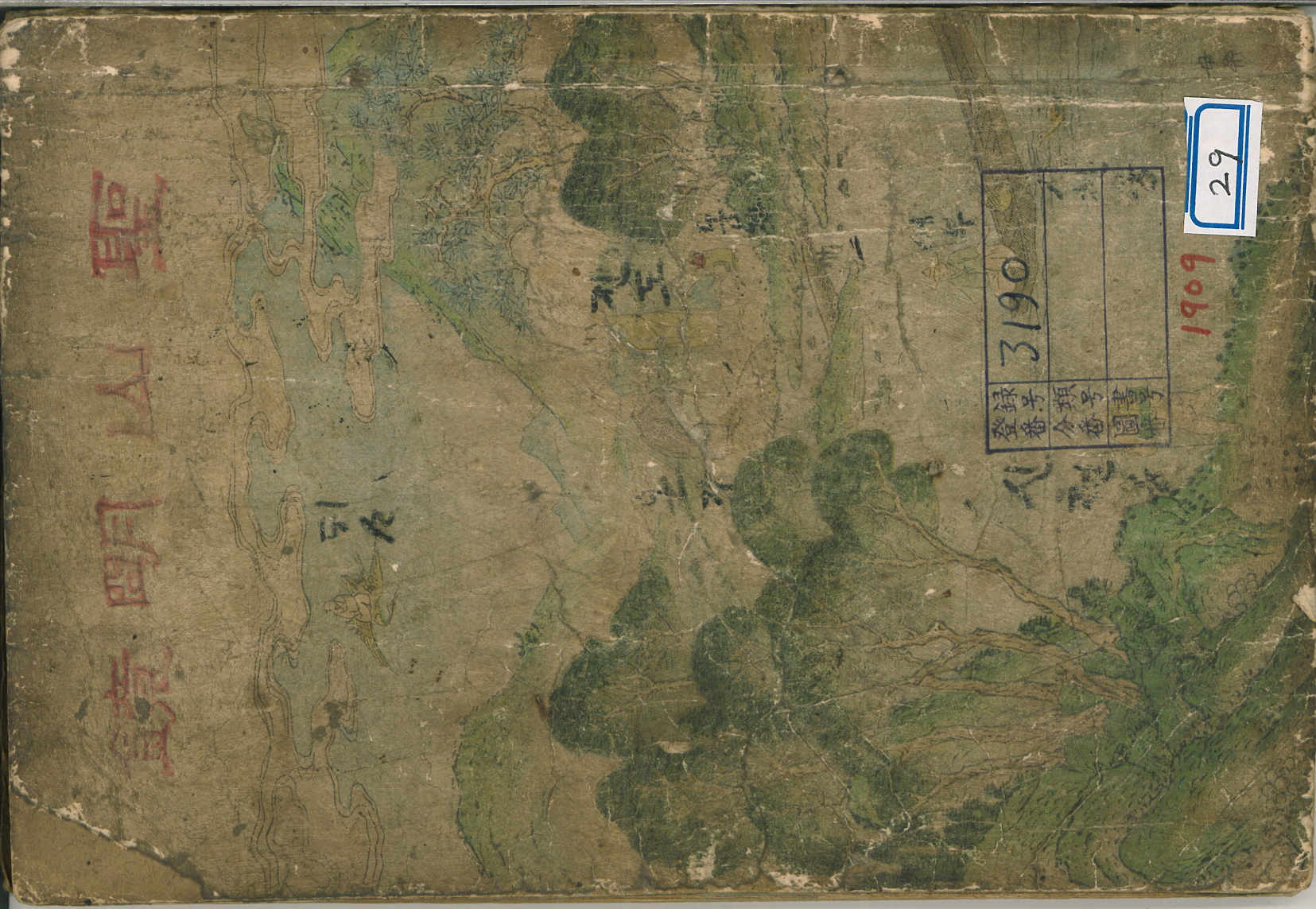
29
登録番号 3190
1909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天路歷程 順德

PREFACE

The best testimony that the Christian Religion has become the personal and complete possession of a nation of people lies in the fact that the people write great Christian allegories in their own language. In English the great Bunyan has given us the Pilgrim's Progress which is deserved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books ever written. And this is true of other languages for they all possess Christian allegories. It is therefore a noteable testimony to the wonderful Christian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that already the teachers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are using this form of writing. The Rev. Choi Pyeng Hun is one of the first pastors of the Korean Christian and in this book has produced a valuable, instructive and interesting allegory. In it he shows most conclusively the all-surpassing value of the Christian faith as compared with the old faiths of the Far East, and prophecies of the ultimate and complete Christianization of his people. This allegory is a personal testimony also without intending it to be so of 최목수 병헌씨' s deep and abiding loyalty to the Lord Christ and his personal faith in the prophecies he has made. I 죠원시 share with him in this faith and esteem it a great honor to introduce this Christian allegory to readers both Korean and foreign.

Seoul Korea March 9th, 1909. Geo. Heber Jones.

夫基督敎가 無論何國ᄒᆞ고 其人民의 思想과 精神을 將ᄒᆞᆫ바의 證據ᄂᆞᆫ 該地敎友가 自國方言으로 宗敎的比論書籍을 著述ᄒᆞᆷ에 亶在ᄒᆞᆫ지라 以英文言之컨ᄃᆡ 藩延約翰의 天路歷程은 此等著作에 最大ᄒᆞᆫ 功效가 有ᄒᆞᆫ것이오 其他方言에도 如斯文藝ᄒᆞᆫ 勢力이 多ᄒᆞ도다 然則 韓國人士의 莫大ᄒᆞᆫ 宗敎發展은 韓國敎會中 先覺者가 此等著述을 着勵ᄒᆞᆷ에 關ᄒᆞᆫ지라 牧師崔炳憲은 韓國敎人中 最優先導者라 今此緊重ᄒᆞ고 必要ᄒᆞᆫ 比論으로 衆人의 一大警鑑을 成ᄒᆞ엿스니 此ᄂᆞᆫ 先生의 高眺로 基督敎信仰力이 東洋諸他宗敎보다 卓越ᄒᆞᆷ을 發表ᄒᆞ엿고 自國民族이 一統基督敎人될것을 豫言ᄒᆞ엿스니 是書ᄂᆞᆫ 先生이 主基督을 忠心信賴ᄒᆞ야 自家預度의 確實ᄒᆞᆫ 信点이 有ᄒᆞᆷ으로 個人的明證에 自然丕彰ᄒᆞᆫ바로다 此書一出에 內外僉彦이 愛讀ᄒᆞ심을 信ᄒᆞ며 余與先生으로 信望을 同一ᄒᆞ야 敢히 蕪說로 此比論에 首ᄒᆞᆷ을 光榮으로 認ᄒᆞ로라

一千九百九年三月九日 美國 趙元時序

登録番号 3190
分類番号
圖書番号

성산명경

미국리학박ᄉᆞ죠원시 교열

詩曰

道成天地敷神功 도로 일운턴디에 신의 공을 펏스니
萬物生生化囿中 만물이 화유가온딕 싱싱ᄒᆞ엿더라
人獨其間靈性在 사름이 홀노 그가온딕 신령ᄒᆞᆫ 셩픔이잇스니
分明禍福五洲同 분명ᄒᆞᆫ 화복이 오쥬가ᄀᆞᆺ더라

화셜이라 조화의 쥬지가 턴디만물을 창조ᄒᆞ신후에 세계가 싱겻시며 세계즁에 륙대부쥬가 잇스니 일홈은 아시아亞細亞와 유로바歐羅巴와 아프리가亞非利加와 남북아메리가亞美利加와 오스드렐리아奧斯達利亞요 다셧대양이 잇스니 일홈은 태평양太平洋과 대셔양大西洋과 인도양印度洋과 북빙양北氷洋과 남빙양南氷洋이며 바다물이 륙디를 포함ᄒᆞ야 디구ᄉᆞ분의일은 륙디가되고 ᄉᆞ분의삼은 물이되엿시며 디구地球의 쥬회는 七萬五千六百里리가량이오 디구를 직션으로 쓸을진딕 二萬四千리가량인

듸 그즁에싱쟝ᄒᆞ는 족속이 셰가지가 잇스니 빅인죵白人種과 황인죵黃人種과 흑인죵黑人種이오 빅인죵즁에 이란과 사미특과 햄이특인죵이잇고 황인죵즁에 아메리간과 몽고리아인죵이잇고 흑인죵즁에 멜네와 인도인죵이잇스니 황인죵은 아시아짜와 유로바북편에 만히살고 빅인죵은 유로바와 북미쥬북편에 만히잇고 흑인죵은 아프리가짜와 태평양셤즁에 만히사는지라 각각졔디방에 싱쟝ᄒᆞ야 언어가 서로ᄀᆞᆺ지아니ᄒᆞ며 풍속이 또ᄒᆞᆫ다른거시 만히잇는듸 디경을 논호며 나라를 셜립ᄒᆞ야 빅셩을 다스리니 통상ᄒᆞ기 이젼에는 호호망망ᄒᆞᆫ 바다밧게 엇더ᄒᆞᆫ나라히 잇는지 피ᄎᆞ에 아지도 못ᄒᆞ엿더라

지셜 아시아동방에 일좌명산이 잇스니 산셰가 문명ᄒᆞ고 토디가 기름져 초목이 무셩ᄒᆞᆫ듸 그산즁에 유벽ᄒᆞᆫ 동학洞壑이잇고 동학가온듸 졀묘ᄒᆞᆫ 층듸가 잇스니 경기가 졀승ᄒᆞ야 녜로브터 도학에 빅부르고 물외에 쇼요ᄒᆞ는 군ᄌᆞ들이 산슈의 락을취ᄒᆞ야 왕왕히 그산즁에 왕릭ᄒᆞ는고로 산일홈을 셩산聖山이라ᄒᆞ고 듸일홈을령듸 靈臺라 부르니 즁즁

ᄒᆞᆫ 봉오리는 옥셕을 갈앗시며 잔잔ᄒᆞᆫ 시닉물은 폭포를 일웟는듸 츈풍화류시와 츄월풍국졀에 시인묵ᄀᆡ들이 슈릭를 멈으르니 고시에 날안바 별유텬듸 비인간이오 월만공산 슈만담이라 강남江南사람 진도라ᄒᆞ는션빅 셩손의 경치를 흠모欽慕ᄒᆞ야 령듸를 차ᄌᆞ갈시 이사람은 근본 유가의 놉흔뎨ᄌᆞ로 공밍을 존숭ᄒᆞ며 문쟝이리두李杜를 압두ᄒᆞ야 스셔오경과 뎨ᄌᆞ빅가셔를 무불통지ᄒᆞ며 필법이 또ᄒᆞᆫ졀등ᄒᆞ야 왕우군王右軍의 필톄와 류공권柳公權의 셔법을 왕왕히 론단ᄒᆞ니 세샹스ᄅᆞᆷ이 진도의 문쟝명필을 칭도ᄒᆞ지 아닐이 업더라 이ᄯᅢ에진도셩산을 차ᄌᆞ가 령듸로 올나가니 두견은 만발ᄒᆞ고 잉셩은 면만ᄒᆞᆫ듸 쳐쳐에 버들빗은 쳥류쟝을 드렷스며 분분ᄒᆞᆫ 락화들은 금슈병을 열엇시니 삼십륙궁이 도모지 봄빗이라 동ᄌᆞ를 분부ᄒᆞ야 쳥결ᄒᆞᆫ 시내물노 향다를 다리라ᄒᆞ고 홀노층듸샹에 빗회ᄒᆞ며 허다ᄒᆞᆫ 경기를 일일히 구경ᄒᆞ더니 홀연히 동편언덕으로 셕쟝을 잇그는 소릭은은히 들녀거ᄂᆞᆯ 진도의심ᄒᆞ야 ᄌᆞ세히 바라보니 일위화샹이 챵안빅납滄顔白衲으로 가샤의를 몸에닙고 셕

쟝을 집헛스니 쳥한훈모양과 온유훈 거동이 불문가지 법계도승이라
진도를보고 흔연히 합쟝ᄇᆡ례ᄒᆞ거ᄂᆞᆯ 진도또훈 깃비마ᄌᆞ 한헌례필에 무
러왈 대ᄉᆞ는 어ᄃᆡ로 좃ᄎᆞ오며 도호는 뉘라ᄒᆞᄂᆞ뇨 화샹이 ᄃᆡ답ᄒᆞ되
쇼승의 일홈은 원각圓覺이압고 ᄃᆡ빅산 太白山란야蘭若라 ᄒᆞᄂᆞᆫ암ᄌᆞ에
잇숩더니 셩산의 경긔를 풍문ᄒᆞ고 훈번보기를 원ᄒᆞ야 왓거기와 감히
뭇잡ᄂᆞ니 션싱은 뉘시닛가 진도왈 나는 강남사ᄂᆞᆫ진도라 ᄒᆞᄂᆞᆫ사람으로
어려셔붓터 산슈에 벽이잇셔 셩산을 구경코져 왓더니 우연이 대ᄉᆞ를
이곳에셔 ᄒᆡ후상봉ᄒᆞ니 역려ᄀᆞᆺ훈 ᄃᆡᆫ간에 부유ᄀᆞᆺ훈 인싱으로 적지아
ᄲᅳᆺ밧게 션싱을 평슈샹봉ᄒᆞ야 비록 승속은 다르나 간담을 허ᄒᆞ시니
감샤무ᄃᆡ ᄒᆞ거니와 도쳐ᄉᆞᄂᆞᆫ 산승을 리별ᄒᆞᆯ졔 호계虎溪를 지나스며
쇼문쟝은 십팔라한羅漢의 화샹을 집에다 뫼셧다 ᄒᆞ니 션싱도 능히

그러ᄒᆞᆫ 운치와 졍셩이 잇겟ᄂᆞ뇨 피ᄎᆞ에 가가대쇼ᄒᆞ고 동자를 불너
다반을 나아오라 ᄒᆞ더니 홀연이보ᄆᆡ 남으로 이샹ᄒᆞᆫ 구름이 ᄂᆡ려나며
일위도ᄉᆞ잇셔 동안학발童顔鶴髮노 갈건을쓰며 도복을 닙엇ᄂᆞᆫᄃᆡ 청슈ᄒᆞᆫ
모양이 파리ᄒᆞᆫ 학과ᄀᆞᆺ훈지라 혼ᄌᆞ말ᄒᆞ되 젼일에 셩산이 됴타ᄒᆞᆷ을 ᄃᆞ
럿더니 오ᄂᆞᆯ보매 과연허언이 아니라ᄒᆞ고 ᄃᆡ상에 올나와 두사름을보고
셩명을 통ᄒᆞ거ᄂᆞᆯ 진도답례왈 나는강남사름 진도어니와 션싱의 도호는
뉘시니잇가 도ᄉᆞ ᄃᆡ답ᄒᆞ야왈 나는 구름ᄀᆞᆺ흔 종적이 뎡쳐업시 ᄃᆞᆫ니오
니 닐은바 ᄃᆞᆫ디天地에 무가긱(無家客)이오 강호江湖에 유발승(有髮僧)
이라 셰샹사름이 부ᄅᆞ기를 빅운白雲이라 ᄒᆞᄂᆞ이다 진도왈 션싱이 뎡
쳐업시 ᄃᆞᆫ닐진ᄃᆡ 유람ᄒᆞᆫ곳이 응당만흘지라 ᄃᆞᆫ하의 경긔가 이셩산 보
ᄃᆞᆷ 나흔ᄃᆡ가 몃곳이나 잇더뇨 도ᄉᆞ답왈 내가일즉이 광동산에 崆峒山
노라 광셩ᄌᆞ廣成子의 유젹을 구경ᄒᆞ고 샹산商山으로 올나가 동원공東
園公의 불로초를 먹엇스며 동졍호洞庭湖로 지나가다가 려동빈呂東賓의
노ᄃᆞᆫ곳을 보앗스며 셔으로 요지瑤池를 차져가셔 왕모를 보랴ᄒᆞ엿더니

쳥됴새가 젼갈ᄒᆞ되 우리낭낭이 동방삭東方朔의게 삼쳔년반도를 세번일코 분노ᄒᆞ야 지금은 령산도쟝靈山道場으로 죵젹을탐지ᄒᆞ러 갓다ᄒᆞ기로 보지못ᄒᆞ고 왓거니와 나의안목으로는 쳥정ᄒᆞ고 번화ᄒᆞᆫ곳이 셩산보다 더됴흔ᄃᆡ가 업슬ᄉᆞᆺᄒᆞᄂᆞ이다 말을 맛치지못ᄒᆞ야 박락ᄒᆞᄂᆞᆫ 소ᄅᆡ들ᄂᆡ며 엇더ᄒᆞᆫ 일위됴년이 쥭쟝마혜로 표연히 올나오ᄂᆡ 긔샹이 늠늠ᄒᆞ고 쳥풍이 불불ᄒᆞᆫ지라 각각ᄂᆡ러나셔 한헌례필에 좌를뎡ᄒᆞ고 셩명을통ᄒᆞᆯ시 됴년이 공경ᄃᆡ왈 량위션싱과 일위대ᄉᆞ의 존함은 더럿거니와 됴데는 근본고려高麗국 사ᄅᆞᆷ으로 셩은을지乙支요 명은학學이옵더니 공부에 뜻이잇셔 셔칙을 등에지고 스승을 차져갈시 호슈물을 지나더니 엇더ᄒᆞᆫ 새가잇셔 오리ᄀᆞᆺ치 물우헤 ᄯᅥ돈니되 입은ᄒᆞᆼ상 하ᄂᆞᆯ노우러러 물속에 고기들이 공즁에 ᄯᅱ놀다가 우연이 입으로 드러오면 주린챵ᄌᆞ를 요긔ᄒᆞ고 일호도 해물지심이업셔 샤욕을 거절ᄒᆞ고 텬명을 슌슈ᄒᆞᄂᆞᆫ지라 됴데가 그새를보고 ᄆᆞ음이 감동ᄒᆞ야 혼ᄌᆞ싱각ᄒᆞ되 만물즁에 지극히 귀ᄒᆞᆫ거슨 사ᄅᆞᆷ이로ᄃᆡ 샤욕을 이긔지못ᄒᆞ야 비긔지ᄉᆞ(肥己之事)만 싱각

ᄒᆞ고 다른사ᄅᆞᆷ에 해되ᄂᆞᆫ거슨 싱각지 아니ᄒᆞᄂᆞᆫ쟈ㅣ 뎌새만 ᄀᆞᆺ지못ᄒᆞ도다ᄒᆞ고 그새의일홈을 그곳어부ᄃᆞ려 무른ᄃᆡ ᄃᆡ답ᄒᆞ되 신텬옹信天翁이라 ᄒᆞᆼ업기로 됴데도 셩명을곳쳐 신텬옹이라 ᄒᆞ엿스나 지금도 ᄒᆞᆼ샹샤욕에 셰져 죄를지을ᄉᆞᆺ 됴심ᄒᆞᄂᆞᆫ이다 진도ᄒᆞᆫ연이 웃고갈ᄋᆞᄃᆡ 그ᄃᆡ의 말슴을 ᄃᆞᄅᆞᆫ즉 공부가놉흔 션ᄇᆡ인줄 알거니와 심샹ᄒᆞᆫ 새를보고 일홈을 곳치ᄂᆞᆫ거슨 용혹무괴로ᄃᆡ 셩ᄉᆞ지변ᄒᆞᆷ은 너무심ᄒᆞ도다 셩이란거슨 조상을 존경ᄒᆞᄂᆞᆫ자ㅣ 엇지 경홀이 변ᄒᆞ리오 망명ᄒᆞᄂᆞᆫ 죄인외에는 실노못ᄒᆞᆯ일인줄 아노라 신텬옹이 답왈 션싱의 말삼이 실노 오괴ᄒᆞ도다 셩명이란거시 근본 조상ᄭᅴ브터 ᄒᆞᄂᆞᆫ님이 작뎡ᄒᆞ야 주신거시 아니라 ᄉᆞ람이 그ᄯᅢ형편과 경우를좃차 변ᄒᆞᄂᆞᆫ니 그런고로 긔ᄌᆞ箕子ᄂᆞᆫ 근본 ᄌᆞ셩이로ᄃᆡ 긔ᄯᅡ에봉ᄒᆞᆷ으로 긔씨가 되엿고 그후ᄌᆞ손들은 혹션우鮮于씨와 혼씨도 되엿스며 로魯나라 젼금展禽은 류하읍에 봉ᄒᆞᆷ으로 일홈을 류하혜柳下惠라 ᄒᆞᆫ지라 만약 션싱의 말삼과 ᄀᆞᆺᄒᆞᆯ진대 강ᄌᆞ아姜子牙를 엇지려상呂尙이라 ᄒᆞ며 리미를엇지 마ᄃᆡ馬太라 ᄒᆞ니잇가 진도능히 답지못

ᄒᆞ는지라 쇼년의게 어굴ᄒᆞᆷ을 분히녁여 셕양夕陽이 지손在山ᄒᆞᆷ을 청탁ᄒᆞ고 동ᄌᆞ를분부ᄒᆞ야 힝리를 슈습케ᄒᆞ거ᄂᆞᆯ 신션옹이 골ᄋᆞ듸 녯적에 향손香山에는 구로회九老會가 잇섯스며 쥭림竹林에는 칠현七賢이 샹죵ᄒᆞ고 쥭계竹溪에는 륙일六逸이 노랏스며 샹산商山에는 ᄉᆞ호四皓가 잇섯더니 우리도 우연이 셩산의셔 평슈샹봉ᄒᆞ야 간담肝膽이 샹조相照ᄒᆞ오니 닐안바 빅아伯牙의 거문고가 종ᄌᆞ긔種子期를 맛낫스며 영문郢門의 빅셜곡白雪曲이 지음知音을 맛ᄂᆞᆫ지라 풍류의 아담ᄒᆞᆷ이 엇지 ᄀᆞᆫ인만 못ᄒᆞ리오 금일은 일락이 졈을기로 흉회를 토론치못ᄒᆞ고 거연이 작별ᄒᆞ오니 실노 챵연ᄒᆞᆫ지라 명일 다시이곳에 모혀경긔도 구경ᄒᆞ고 청담으로 토론ᄒᆞ야 쇼뎨ᄀᆞᆺ흔 우민ᄒᆞᆫ 소견을 밝히ᄀᆞᄅᆞ쳐 주심이 엇더ᄒᆞ니잇가 빅운과 원각은 ᄒᆞᆫ연이 응락ᄒᆞ고 진도는 지삼쥬져 ᄒᆞ다가 명일노 긔회ᄒᆞᆷ을 허락ᄒᆞ고 각각촌락을 차져가 류슉ᄒᆞ니 아지못거라 이네사람이 흉회를 엇더케 토론ᄒᆞᆫ고 하회下回를보라

詩

萍塲車笠不期來 마름마당의 거립이 긔약업시 왓스나
管韻牙絃共一盃 관즁의운과 빅아의 줄이 ᄒᆞᆫ잔술을 ᄀᆞᆺ치ᄒᆞ엿더라
四友論襟猶未了 네벗이 론금ᄒᆞ기를 오히려 맛치지 못ᄒᆞ야
夕陽山色倒靈臺 셕양의 산빗치 령ᄃᆡ의 거구러지더라

曰

그잇흔날 아참에 신션옹이 일즉니러나 싱각ᄒᆞ되 어적게 셩산에셔 맛나든 사ᄅᆞᆷ들이 ᄌᆞ픔도 쥰슈ᄒᆞ고 총명도 절등ᄒᆞ나 모양을보건대 ᄒᆞ나도 하ᄂᆞ님의 은혜를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엇지 탄식ᄒᆞᆯ일이 아니리오 내가 아못조록 권면ᄒᆞ야 구졔쥬를 밋게ᄒᆞ리라 이에 업다려 하ᄂᆞ님씌 긔도ᄒᆞ고 조반을 맛친후에 즉시 령ᄃᆡ를 차져가니 ᄒᆞᆫ사ᄅᆞᆷ도 온이가 업ᄂᆞᆫ지라 좌우를 도라보니 청산일야에 츈광이 담탕ᄒᆞ야 동원도리 복사ᄭᅩᆺ츤 찬이슬을 먹음엇고 ᄒᆞᆫ식동풍 버들빗츤 셕긘내를 씌엿ᄂᆞᆫᄃᆡ 시인묵ᄀᆡ의 쇼회를 도도거늘 시편을 외오더니 빅운과 원각이 ᄆᆞᆨ ᄃᆡ를련ᄒᆞ야 ᄒᆞᆷ씌와셔 신션옹을 보고 야ᄅᆡ에 무량ᄒᆞᆷ을 인ᄉᆞᄒᆞ거늘 신션옹이 답례왈 량위션싱은 긔약을 져바리지 아니ᄒᆞ고 신근히 차지시니 닐은

바 유신ᄒᆞᆫ군ᄌᆞ요 허심ᄒᆞᄂᆞᆫ 친구로다 피ᄎᆞ슈작ᄒᆞ며 진션싱의 아니옴을 ᄒᆞᆫ탄ᄒᆞ더니 슈유에 진도동ᄌᆞ로ᄒᆞ여곰 차관을 닛글고 픔ᄌᆞ品字의 안경과 지ᄌᆞ之字의 거름으로 완완히 올나오니 진즁ᄒᆞᆫ모양이 진짓 셩현문하聖賢門下에 도고학쟈道高學者ㅣ라 각각니러나 좌뎡례필에 신텩옹이 ᄀᆞᆯᄋᆞᄃᆡ 션싱의 오심이 엇지그리 더ᄃᆡ시니잇가 진도왈 그ᄃᆡ가 녜글을 보지못엿ᄂᆞ뇨 츈쇼고단일고긔春宵苦短日高起라 ᄒᆞ엿스니 ᄂᆞᆺ게 니러남은 츈곤을 인홈이요 공ᄌᆞ孔子ᄀᆞᆯᄋᆞ샤ᄃᆡ 죡용즁足容重이라 ᄒᆞ셧스니 ᄲᆞᆯ니 오지못홈은 힝보의 셔셔홈이라 그ᄃᆡ갓흔쇼년은 힘만밋고 경됴輕跳ᄒᆞ거니와 로부는 일죽이 셩문에 공부ᄒᆞ야 훈계를 직힐ᄲᅮᆫ 아니라 긔력이 ᄎᆞᄎᆞ쇠픽 홈이로라 신텩옹이 ᄀᆞᆯᄋᆞᄃᆡ 션싱의말ᄉᆞᆷ이 가장 이상ᄒᆞ도다 쇼뎨는 아는거시 업거니와 츈쇼고단일고긔는 당현종唐玄宗이 귀비의게 침혹홈을 ᄇᆡᆨ락텬白樂天이 죠쇼ᄒᆞᆫ 말ᄉᆞᆷ이오 직아宰我라 ᄒᆞᄂᆞᆫ뎨ᄌᆞ 낫졔 잠자거늘 공ᄌᆞ孔子ㅣ ᄭᅮ지져 ᄀᆞᆯᄋᆞ사대 썩은나무는 가히 ᄉᆡᆨ일수업고 분토(糞土)의담은 가히더럽게 ᄒᆞᆯ수업다 ᄒᆞ셧스며ㅣ 일죽이 니러

나고 밤늣게 ᄶᅡ라홈은 유가셔에 말ᄉᆞᆷ이라 션싱이 외모로는 셩현을 존숭ᄒᆞ나 실상은 셩현의 훈계를 범ᄒᆞ심이니다 진도불열왈 년쇼비가 어룬을 론박ᄒᆞᄂᆞᆫ거시 톄례가 아닐ᄉᆡ ᄒᆞ노라 신텩옹이 ᄯᅩᄒᆞᆫᄀᆞᆯᄋᆞᄃᆡ 공부ᄌᆞ는 비호기를 슬혀ᄒᆞ지 아니시고 ᄀᆞᄅᆞ치기를 게을니 아니신다 ᄒᆞ셧스니 션싱은 유교에 놉흐신 뎨ᄌᆞ라 두어마ᄃᆡ 말ᄉᆞᆷ으로 쇼뎨를 ᄀᆞᄅᆞ쳐 의심을 파혹케 ᄒᆞ심이 엇더ᄒᆞ니잇가 진도왈 낙다 그ᄃᆡ의말을 드른즉 닐안바 유ᄌᆞ孺子를 가교可敎로다 신텩옹이 무ᄅᆞᄃᆡ 광대ᄒᆞᆫ 텬디간에 일월이 명랑ᄒᆞ고 만물이 번셩ᄒᆞ오니 당초에 이셰계가 엇더케 싱겻다 ᄒᆞᄂᆞ잇가 진도왈 쥬역에 ᄀᆞᆯᄋᆞᄃᆡ 대ᄌᆡ大哉라 건원乾元이여 만물을 비롯ᄒᆞ며 지ᄌᆡ至哉라 곤원坤元이여 만물을 싱ᄒᆞ다 ᄒᆞ엿스니 건도乾道는 양이되고 곤도坤道는 음이되야 음양의 리긔理氣로 만물을 싱싱ᄒᆞᆫ거시라 쥬부ᄌᆞ朱夫子ᄀᆞᆯᄋᆞ샤ᄃᆡ 나의몸은 텬디에 긔운이오 나의셩픔은 텬디의 리치라 ᄒᆞ고 ᄯᅩᄀᆞᆯᄋᆞᄃᆡ 하ᄂᆞᆯ은 아버지요 ᄯᅡ은 어머니시니 사ᄅᆞᆷ이 그가온ᄃᆡ 싱ᄒᆞ야 다텬디의 ᄌᆞ식이 된다ᄒᆞ시고 쥬렴계周濂

溪글으ᄃᆡ 무극無極이 太極태극이되야 조화의 쥬긔樞機를 일우다ᄒᆞ엿스
니 태극의 리치로 량의兩儀 와ᄉᆞ샹四象이 싱ᄒᆞ고 오힝五行의 긔운으
로 만물이 싱기다ᄒᆞ노라 신현옹이글으ᄃᆡ 션싱의말슴이 도지기일徒知其
一이요 미지기이未知其二로다 쥬회암朱晦庵 격치셔格致書에글으ᄃᆡ 태극
은 실샹 리치뿐이라 리치가 합벽闔闢ᄒᆞᄂᆞᆫ 문호門戶와 지도리가 되야
남녀와 만물의 싱싱ᄒᆞᄂᆞᆫ 근본이 되다ᄒᆞ고 ᄯᅩ글으ᄃᆡ 리치란거슨 졍의
情意도업고 계교홈도업고 조작造作홈도 업다 ᄒᆞ엿스니 태극리치가 만
일 졍의와 조작홈이 업슬진ᄃᆡ 지혜智慧와 신령神靈도 업ᄂᆞᆫ거시니 엇
더케 허령지각虛靈知覺이 잇ᄂᆞᆫ사람과 만물을싱ᄒᆞ며 ᄯᅩ흔 건곤리긔(乾
坤理氣)와 음양오힝으로 만물이 싱기다ᄒᆞ시니 건곤음양은 당초에 어
ᄃᆡ셔 싱겻다 ᄒᆞ시ᄂᆞ닛가 진도왈 그러ᄒᆞ면 그ᄃᆡ는 텬디만물이 엇더케
되엿다 ᄒᆞᄂᆞ뇨 신현옹이답왈 반ᄃᆞ시 젼지젼능全知全能ᄒᆞ신 하ᄂᆞ님의
조화로 텬디만물을 창조 ᄒᆞ신거시라 음양오힝은 텬디일월天地日月과
금목슈화토金木水火土를 ᄀᆞᄅᆞ쳐 말슴홈이오나 텬디오힝도 하ᄂᆞ님씌 ᄆᆞᆫ

드심을 밧은물건으로 아모권능이 업거늘 엇지 만물을 싱ᄒᆞ리오 음양
을 분셕ᄒᆞ야 의론 홀진ᄃᆡ 하ᄂᆞᆯ은 양이오 ᄯᅡ은 음이라ᄒᆞ며 히ᄂᆞᆫ 양
이오 ᄃᆞᆯ은 음이라ᄒᆞ며 사나희ᄂᆞᆫ 양이오 녀인은 음이라ᄒᆞ며 봄과 여
름은 양이오 가을과 겨을은 음이라ᄒᆞ며 낫은양이오 밤은음이라ᄒᆞ며
산남쪽은 양이오 산북쪽은 음이라ᄒᆞ며 사람의 사ᄂᆞᆫ것은 양이오 죽ᄂᆞᆫ
것은 음이라ᄒᆞ고 즘싱의 수놈은 양이오 암놈은 음이라ᄒᆞ니 일노좃차
보건ᄃᆡ 음양이란것은 물건이 잇신후에 일홈을 지여 말홀수 잇ᄂᆞᆫ것이
라 만일 텬디 일월과 쥬야 한셔와 남녀ᄌᆞ웅이 업더면 음양리긔라
ᄒᆞᄂᆞᆫ것을 어나곳에 붓쳐 말ᄒᆞ리오 그런즉 물건이 싱긴후에 잇ᄂᆞᆫ음양
이 능히 물건을 낼수 업ᄂᆞᆫ것이오 ᄯᅩ흔 금목슈화토 오힝이란것은 ᄒᆞᆫ
물질 物質이니 사람의 날노쓰고 먹고 마시ᄂᆞᆫ 물건이라 금셕과 토목
으로 집을 지으며 슈화로ᄂᆞᆫ 음식ᄒᆞᄂᆞᆫᄃᆡ 필요ᄒᆞᆫ 지뇨를 ᄉᆞᆷᄂᆞᆫ니 오힝
이 사람의게 요긴ᄒᆞᆫ 물질이라 이졔 금목슈화토를 ᄒᆞᆫ곳에 두고보면
그형질을 스스로 요동홀수도 업고 ᄊᆞᆯ만ᄒᆞᆫ 그릇슬 일우지도 못ᄒᆞ야

반드시 사름의 손을 의지ᄒᆞ야 릭왕도ᄒᆞ고 그릇도되ᄂᆞ니 이러ᄒᆞᆫ 물질이 엇더케 만물을 내게ᄒᆞ리오 일노좃차 궁구 ᄒᆞᆯ지라도 음양오힝이 능히사름을 내지못ᄒᆞᆷ이 분명ᄒᆞᆫ지라 대개 하ᄂᆞ님씌셔 문드신바즁에 두가지가 잇스니 一은 물톄요 一은 령혼이라 물톄란거슨 일월셩신과 금목슈화토 ᄀᆞᆺ흔거시니 아모지각도 업고 영위營爲도업셔 사름의 일용ᄒᆞᄂᆞᆫ 물건이되고 령혼이란거슨 형샹이 업ᄂᆞᆫ즁에 허령감각虛靈感覺과 량지량능良智良能이잇서 능히 물건을 졔조도ᄒᆞ고 능히 텬디일월늘 츄측推測ᄒᆞ야 혜아릴수도잇고 초목금슈草木禽獸를 능히 부리며 비양ᄒᆞᆯ수 ᄒᆞ신거슬 닐으ᄃᆡ 셩품이라ᄒᆞ고 공ᄌᆞ글으샤ᄃᆡ 하ᄂᆞᆯ이 무ᄉᆞᆷ말ᄉᆞᆷ을 ᄒᆞ시리오 ᄉᆞ시四時가 힝ᄒᆞ며 만물이 싱육生育ᄒᆞᆫ다 ᄒᆞ셧스니 하ᄂᆞᆯ이 만물을 내신거시야 뉘가모른다 ᄒᆞ리오 신텬옹이 ᄯᅩ글으ᄃᆡ 졍명도程明道말

ᄉᆞᆷᄒᆞ디 그형톄形體로써 하ᄂᆞᆯ이라ᄒᆞ고 그쥬지主宰로써 샹뎨라 ᄒᆞ엿스니 샹뎨씌셔와 하ᄂᆞᆯ이란거시 특별히 다르거늘 유셔에는 분간이업시 일톄로말ᄉᆞᆷᄒᆞ야 획죄우텬 獲罪于天이라 텬명지위셩 天命之謂性이라 텬싱증민天生烝民이라ᄒᆞ고 유황샹뎨 강즁우민 維皇上帝降衷于民이라 황의샹뎨림하유혁 皇矣上帝臨下有赫이라 샹뎨림여 上帝臨汝시니 무이이심 無貳爾心이라 ᄒᆞ엿스니 심히물륜囫圇ᄒᆞ고 몽롱矇曨ᄒᆞᆫ지라 우리셩경에 예수ᄀᆞᆯ으샤ᄃᆡ 하ᄂᆞᆯ은 샹뎨의 좌쳐가되고 ᄯᅡ흔 샹뎨의 발판이라 ᄒᆞ셧스니 이제 텬디는 집과ᄀᆞᆺ고 샹뎨씌셔는 집의쥬인과 ᄀᆞᆺ흐시니 집이란거슨 또ᄒᆞᆫ 쥬인의 지은바되야 아모지각도 업ᄂᆞᆫ물건이오 집안에 모든일은 다 그집쥬인이 쳐결ᄒᆞᄂᆞᆫ 거시여늘 이졔하ᄂᆞᆯ이 만물을 내다ᄒᆞᆷ은 하ᄂᆞ님의 집이 내다ᄒᆞᆷ이니 엇지 그릇ᄒᆞᆷ이 아리오 가령 황뎨폐하씌셔 죠칙을 ᄂᆞ리시거든 빅셩들이 말ᄒᆞ기를 궁궐이 죠칙을 ᄂᆞ리다ᄒᆞ고 궁궐을 숭봉 ᄒᆞ자ᄒᆞ면 의리에 합당ᄒᆞ겟ᄂᆞ뇨 공ᄌᆞ글으사ᄃᆡ 션을 힝ᄒᆞᄂᆞᆫ쟈는 하ᄂᆞᆯ이 복으로써갑고 악을 힝ᄒᆞᄂᆞᆫ쟈는 하ᄂᆞᆯ이 앙화로써 갑ᄂᆞᆫ다

ᄒᆞ엿스니 이거슨 하ᄂᆞᆯ이 곳쥬ᄌᆡ이신줄 알미라 하ᄂᆞᆯ텬ᄌᆞ와 샹뎨란글ᄌᆞ
가 엇지 ᄀᆞᆺ흔뜻이라 ᄒᆞᄂᆞ잇가 그런고로 량인梁寅의 역쥬(易註)에ᄀᆞᆯᄋᆞ
ᄃᆡ 뎨帝라 ᄒᆞ심은 신의 일홈이오 신神은 샹뎨에 령이니 만물을 쥬
ᄌᆡ ᄒᆞ신다ᄒᆞ고 ᄌᆞ하子夏역젼에 ᄀᆞᆯ아ᄃᆡ 뎨쟈帝者는 조화의 쥬ᄌᆡ요 텬
디의 조종이라ᄒᆞ고 ᄯᅩᄒᆞᆫ 우리셩경에 ᄀᆞᆯᄋᆞ샤ᄃᆡ 틔초시에 샹뎨ᄭᅵ셔 텬
디만물을 창조ᄒᆞ시다 ᄒᆞ엿스니 하ᄂᆞᆯ이 만물을 ᄂᆡᆫ거시아니라 샹뎨ᄭᅵ셔
창조ᄒᆞ시다 ᄒᆞᄂᆞ니라 진도능히반ᄃᆡ치 못ᄒᆞᄂᆞᆫ지라 신텬옹이 ᄯᅩᄀᆞᆯᄋᆞᄃᆡ
하ᄂᆞᆯ이 명ᄒᆞ신거슬 닐ᄋᆞᄃᆡ 셩픔이요 셩픔을 거ᄂᆞ리ᄂᆞᆫ거슬 닐ᄋᆞᄃᆡ 도
라 ᄒᆞ엿스니 사ᄅᆞᆷ의 셩픔이 엇더ᄒᆞᆫ 거시닛가 진도왈 공ᄌᆞᄀᆞᆯᄋᆞ샤ᄃᆡ
셩픔은 서로갓가오나 익히ᄂᆞᆫ거시 셔로멀다 ᄒᆞ시고 ᄆᆡᆼᄌᆞ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
셩픔의 션ᄒᆞᆫ거시 물이아ᄅᆡ로 가ᄂᆞᆫ것ᄀᆞᆺᄒᆞ야 사ᄅᆞᆷ은 션치아닌이가 업고
물은 ᄂᆞ려가지 아님이 업다 ᄒᆞ셧스니 사ᄅᆞᆷ의 셩픔이 근본 션ᄒᆞᆫ거셩
시오 악ᄒᆞᆫ일을 힝ᄒᆞᄂᆞᆫ거슨 물욕의 교페ᄒᆞᆷ이라 ᄒᆞ노라 신텬옹이 ᄀᆞᆯᄋᆞ
ᄃᆡ공ᄌᆞ말ᄉᆞᆷ에 셩샹근야 性相近也나 습샹원야 習相遠也라 ᄒᆞ심이 고ᄌᆞ

告子의말에 사ᄅᆞᆷ의 셩픔이 물과ᄀᆞᆺ하 동방으로 인도ᄒᆞ면 동으로흐르고
셔방으로 인도ᄒᆞ면 셔으로 흐르다ᄒᆞᆷ과 ᄀᆞᆺᄒᆞᆫ말ᄉᆞᆷ이라 셩픔의 션악이
ᄀᆞᄅᆞ치고 익히ᄂᆞᆫᄃᆡ 잇다ᄒᆞ심이니 실노의혹ᄒᆞᆯ말ᄉᆞᆷ이라 요堯의아ᄃᆞᆯ 단쥬
와 슌舜의아ᄃᆞᆯ 상균이 다 불초不肖ᄒᆞ다 ᄒᆞ엿스니 요슌ᄀᆞᆺᄒᆞ신 셩인으
로 그아ᄃᆞᆯ들을 반다시 잘ᄀᆞᄅᆞ치셧슬 터이어늘 엇지ᄒᆞ야 어질지 못ᄒᆞ
엿스며 고슈瞽瞍ᄀᆞᆺ치 완악ᄒᆞᆫ 사ᄅᆞᆷ으로 그아ᄃᆞᆯ을 반ᄃᆞ시 잘ᄀᆞᄅᆞ치지
못ᄒᆞ엿슬터이어늘 슌님군은 엇지ᄒᆞ야 대셩인이 되셧ᄂᆞ잇가 일노좃차
의론ᄒᆞ건ᄃᆡ 셩픔의 션악이 교습ᄒᆞᄂᆞᆫᄃᆡ 잇ᄂᆞᆫ거시아니오 ᄯᅩᄒᆞᆫ ᄆᆡᆼᄌᆞ말ᄉᆞᆷ
은 사ᄅᆞᆷ의 션ᄒᆞᆷ이 물이 아ᄅᆡ로 흐르ᄂᆞᆫ것ᄀᆞᆺ다 ᄒᆞ셧스니 더욱 의심ᄒᆞᆯ
말ᄉᆞᆷ이라 물의셩픔은 ᄒᆞᆼ상 아ᄅᆡ로가ᄂᆞᆫ고로 사ᄅᆞᆷ이 비록막을지라도 그
즁에 나진곳을 향ᄒᆞ야 반ᄃᆞ시 아ᄅᆡ로 가거니와 사ᄅᆞᆷ의셩픔은 그러치
못ᄒᆞ야 안으로 엄슉ᄒᆞᆫ부형이 계시고 밧그로 어진스승이 잇슬지라도
ᄒᆞᆼ샹 악ᄒᆞᆫ길노 가ᄂᆞᆫ쟈ㅣ만ᄉᆞ오니 엇지물의 셩픔과 ᄀᆞᆺ다ᄒᆞ시릿가 진도
왈 공ᄌᆞᄀᆞᆯᄋᆞ샤ᄃᆡ 싱이지지쟈 生而知之者 ᄂᆞᆫ샹등이오 학이지지쟈 學而

知之者는 그버금이되고 곤이학지자 困而學之者는 또 그다음이되고 비
화도되지 못ᄒᆞᄂᆞᆫ쟈는 하우불이 下愚不移라 ᄒᆞ셧스니 사ᄅᆞᆷ의 긔품氣品
이날때브터 청탁淸濁이 ᄀᆞᆺ지못ᄒᆞ야 청ᄒᆞᆫ쟈는 셩인이되고 탁ᄒᆞᆫ쟈는 하
우불이가 되ᄂᆞ니 쥬부ᄌᆞ朱夫子 ᄀᆞᆯᄋᆞ샤ᄃᆡ 오직셩인은 셩품대로 ᄒᆞ시ᄂᆞᆫ
쟈ㅣ라 호호ᄒᆞᆫ 하ᄂᆞᆯ이시니 터럭ᄭᅳᆺ맘치 더ᄒᆞ지 아니ᄒᆞ여도 일만가지
션ᄒᆞᆷ이 족ᄒᆞ다 ᄒᆞ셧스니 슌님군 ᄀᆞᆺᄒᆞᆫ이는 비호지 아니ᄒᆞ여도 셩인이
되심이오 단쥬와 샹균은 하우불이라 ᄀᆞᄅᆞ쳐도 되지못ᄒᆞᆫ 거시오 또ᄒᆞᆫ
사ᄅᆞᆷ을 잘ᄀᆞᄅᆞ쳐도 악ᄒᆞᆫ길노 가ᄂᆞᆫ거슨 물욕교폐 物慾交蔽ᄒᆞᆷ이라 사ᄅᆞᆷ
의 텬셩이 엇지 악ᄒᆞ다 ᄒᆞ리오 정명도 ᄀᆞᆯᄋᆞᄃᆡ 셩품은 곳 긔운이요
긔운은 곳 셩품이니 사ᄅᆞᆷ이 날때브터 ᄒᆞᆷ씌품부ᄒᆞᆫ 거시라 셩품의 희
노이락喜怒哀樂이 물의 파도波濤와 ᄀᆞᆺᄒᆞ니 담연ᄒᆞᆫ 물이 고요ᄒᆞ야 거
울 ᄀᆞᆺᄒᆞᆫ거슨 물의 셩품이오 바람과 샤셕沙石을 만나 파도가 흉용ᄒᆞᆷ
은 물결의 격동ᄒᆞᆷ이니 곳 정욕情慾의 부림이라 ᄒᆞ셧스니 사ᄅᆞᆷ의 셩
품이 엇지 물과ᄀᆞᆺ지 안타ᄒᆞ리오 신텬옹이 ᄃᆡ왈 션싱의 말ᄉᆞᆷ과 ᄀᆞᆺᄒᆞᆯ

진ᄃᆡ 셩인은 비호지 아니ᄒᆞ여도 싱이지지 ᄒᆞᆷ으로 교왕금릭古往今來에
만ᄉᆞ를 통달 ᄒᆞᆯ거시오 우슌愚蠢ᄒᆞᆫ쟈는 쥬야로 공부ᄒᆞ고 도덕을 힘쓸
지라도 하우불이가 될지니 사ᄅᆞᆷ이 졔샹에 나매 학문을 공부ᄒᆞᆯ것도업
고 스승의 ᄀᆞᄅᆞ칠것도 업슬지라 엇지민싱으로 ᄒᆞ여곰 문명에 진보케
ᄒᆞ리오 안ᄌᆞ顔子ᄀᆞᆯᄋᆞ샤ᄃᆡ 슌은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며 나는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뇨 ᄒᆞ시고 또밍ᄌᆞᄀᆞᆯᄋᆞ샤ᄃᆡ 뎌도쟝부丈夫요 나도쟝부라 ᄒᆞ셧스니 사ᄅᆞᆷ
마다 힘써힝ᄒᆞ고 아니힝ᄒᆞᆷ에 잇ᄂᆞᆫ거시라 하ᄂᆞᆫ님씌셔 엇지편벽偏僻도이
사ᄅᆞᆷ의 현불쵸賢不肖를 분별ᄒᆞ야 내시리오 또ᄒᆞᆫ물욕이 셩정을 뇨동撓
動케ᄒᆞᆷ은 물결이 샤셕을 맛남ᄀᆞᆺ다 ᄒᆞ시니 셩현의ᄆᆞ음은 물욕에 침노
ᄒᆞᆷ을 이긔고 뇨동치 아니ᄒᆞᆯ지라 바람과 샤셕을 맛날때에 능히뇨동치
아니ᄒᆞᄂᆞᆫ 물결도 잇ᄂᆞᆫ닛가 어리셕은쟈의 셩품은 물욕이 침노ᄒᆞ고 셩
인의 셩품은 물욕이 침노치 아니ᄒᆞᄂᆞᆫ닛가 엇던물에는 바람이 불고
엇던물에는 바람이 오지아니 ᄒᆞᄂᆞᆫ닛가 셩인의 품셩과 악인의 품셩이
ᄀᆞᆺ지아니ᄒᆞ야 그러ᄒᆞ니닛가 진도능히 ᄃᆡ답지못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그러면 그

듸는 사름의 셩픔이 엇덧타 ᄒᆞᄂᆞ뇨 군ᄌᆞ와 쇼인의 셩픔이 ᄀᆞᆺᄒᆞ며
하우불이도 능히 셩인이 될수잇다ᄒᆞᄂᆞ뇨 신텬옹이 답왈 사름의 텬셩
은 근본根本하ᄂᆞ님씌 밧은거시라 지우현불쵸智愚賢不肖를 물론ᄒᆞ고 다
ᄀᆞᆺ흔 거신즉 일호도 등분의 우열이 업ᄂᆞᆫ거시오 그사름의 지혜와 어
리셕은거슨 긔질청탁氣質淸濁과 심지유무心才有無에 달닌거시라 엇
지 그셩픔에잇다 ᄒᆞ리오 그런즉 사름이 셰상에 날때에 셩현과 완악
頑惡ᄒᆞᆫ쟈를 하ᄂᆞ님이 작뎡酌定ᄒᆞ야 주신거시 아니라 오직 그사름이
텬명을 좃차가ᄂᆞᆫ듸 잇ᄂᆞᆫ거시오 또ᄒᆞᆫ 싱이지지라 흠은더욱 어리셕은
ᄒᆞ셧스며 밍ᄌᆞ의 모친은 아ᄃᆞᆯ을 ᄀᆞᄅᆞ칠때에 셰번을 이샤ᄒᆞ엿스니 싱
이지지쟈는 근본 업ᄂᆞᆫ거시라 도학을 공부ᄒᆞᆯ때에 텬명을 좃차 량심으
로 힝ᄒᆞᄂᆞᆫ쟈는 셩현이 될거시오 공부ᄒᆞᆯ때에 텬셩을 ᄇᆡ리고 졍욕을

좃ᄂᆞᆫ쟈는 완악ᄒᆞᆫ 쇼인이 되ᄂᆞ니 사름마다 ᄌᆞ유ᄒᆞᄂᆞᆫ 권이잇셔 청불청
聽不聽과 힝불힝 行不行에 잇ᄂᆞᆫ지라 작지불이 作之不已면 ᄂᆡ셩군ᄌᆞ
乃成君子라 ᄒᆞ엿스니 지금우리라도 텬명을 슌슈順受ᄒᆞ야 도학을 힉쓸
진ᄃᆡ 군ᄌᆞ가 되리라 ᄒᆞᄂᆞ이다 진도 형파에 ᄀᆞᆯ으ᄃᆡ 그ᄃᆡ의 말솜이
근리近理ᄒᆞ거니와 사름마다 셩인이 된다홈은 긔필ᄒᆞᆯ수 업ᄂᆞᆫ지라 우
리가 암만 공부ᄒᆞ고 텬량지심 天良之心을 좃친들 엇지 공부ᄌᆞ와 ᄀᆞᆺ
흔 셩인이 된다ᄒᆞ리오 신텬옹이 ᄀᆞᆯ으ᄃᆡ 공부ᄌᆞ는 온량溫良ᄒᆞ시며 공
검恭儉ᄒᆞ시고 겸양謙讓홈으로 엇으신지라 요슌을 조술祖述 ᄒᆞ시며 문
무文武를 법ᄒᆞ샤 이왕 셩현을 너으시고 오ᄂᆞᆫ학문을 열으샤 요슌보다
더 어질다 ᄒᆞ엿스오니 과연 일호도 그릇홈이 업스릿가 진도왈 셩인
의 덕힝이 능히 하ᄂᆞᆯ을 ᄯᅡᆨᄒᆞ거ᄂᆞᆯ 엇지잘못홈이 잇스리오 신텬옹이
공경恭敬ᄒᆞ왈 론어에ᄀᆞᆯ으ᄃᆡ 유비柳比라 ᄒᆞᄂᆞᆫ데ᄌᆞ ㅣ 공ᄌᆞ를 보고져ᄒᆞ거
ᄂᆞᆯ 공ᄌᆞ 병드럿다ᄒᆞ샤 보시지 아니ᄒᆞ고 쟝명쟈 將命者문에 나아가거
ᄂᆞᆯ 공ᄌᆞ 비파를 타시며 노ᄅᆡᄒᆞ샤 ᄒᆞ여곰 병드지 아니심을 보이셧다

ᄒᆞ엿스니 셩인의 도리가 엇지 그러ᄒᆞ시뇨 셜ᄉᆞ 유비로 ᄒᆞ여곰 죄가 잇슬진ᄃᆡ 죄인을보시고 면책面責ᄒᆞ샤 ᄭᅵ닷게 ᄒᆞ는거시 올커늘 그리도 아니시고 ᄆᆞ음에 그사ᄅᆞᆷ이 보기슬헐진ᄃᆡ 보기 슬타ᄒᆞ샤 바로 말ᄉᆞᆷ ᄒᆞ는거시 올커늘 거줏말ᄉᆞᆷ으로 병드럿다 ᄒᆞ시고 ᄯᅩᄒᆞᆫ 비파를 타 병드지 아닌거슬 뵈엿스니 그일이 올타 ᄒᆞ리잇가 진도왈 셩인이 그사ᄅᆞᆷ의 죄를 박졀히 칙망ᄒᆞ기 어려온고로 권도를쓰샤 ᄀᆞᄅᆞ치심인가 ᄒᆞ노라 신텬옹이ᄀᆞᆯ으ᄃᆡ 셩인은 거줏말을ᄒᆞ여 관계치 아닐진ᄃᆡ 셩인의 ᄃᆡ도도 거줏말을ᄒᆞᆷ이 무방ᄒᆞᆯ지라 후세사ᄅᆞᆷ들이 공ᄌᆞ를 존숭ᄒᆞ는쟈ㅣ 나라에 벼슬ᄒᆞ다가 조곰 어려온일이 잇스면 무병ᄒᆞᆫ신하가 공연이 병드럿다 칭탁ᄒᆞ고 샹쇼ᄒᆞ느니 실노 님군을 속임이라 권도로 거줏일을 ᄒᆡᆼᄒᆞ는거시 엇지 올타 ᄒᆞ리잇가 진도가 능히 ᄃᆡ답지못ᄒᆞ거ᄂᆞᆯ 신텬옹이 ᄯᅩ 문왈 공ᄌᆞᄀᆞᆯ으샤ᄃᆡ 부모가계심ᄊᆡ에 그 ᄯᅳᆺ슬보고 부모가 죽은 후에 그 ᄒᆡᆼ실을 보느니 삼년을 아비의도를 곳치지 아니ᄒᆞ여야 ᄂᆞᆯ으ᄃᆡ 효ᄌᆞ라 ᄒᆞ셧스니 이말ᄉᆞᆷ이 무ᄉᆞᆷᄯᅳᆺ시닛가 셜ᄉᆞ ᄌᆞ긔의 부모가 도

적질을 ᄒᆞᆫ다든지 음란을 ᄒᆡᆼᄒᆞᆯ진ᄃᆡ 삼년은 고샤ᄒᆞ고 부모가 살앗슬ᄊᆡ라도 그ᄒᆡᆼ실을 본밧지 아니ᄒᆞᆷ이 올코 그부모가 착ᄒᆞᆫ덕ᄒᆡᆼ이 잇슬진ᄃᆡ 삼년은 고샤ᄒᆞ고 ᄌᆞ긔몸이 죽을ᄊᆡ지 아비의도를 직희는거시 올커늘 엇지 반ᄃᆞ시 삼년이라 ᄒᆞ셧스며 부모의 도가 그를지라도 삼년은 곳치지 못ᄒᆞ리잇가 진도ᄀᆞᆯ으ᄃᆡ 셰샹에 엇지그른도가 잇스리오 아비의 도라ᄒᆞ심은 반ᄃᆞ시 덕ᄒᆡᆼ을 ᄀᆞᄅᆞ쳐 말ᄉᆞᆷᄒᆞ심이오 삼년을 곳치지 아님이 효라ᄒᆞ심은 내역시 의심ᄒᆞ노라 신텬옹이 ᄯᅩ 무르ᄃᆡ 양화라ᄒᆞ는사ᄅᆞᆷ이 공ᄌᆞ가 집에 업슬ᄊᆡ를 엿보아 돈豚의 고기를 보내엿거ᄂᆞᆯ 공ᄌᆞ께셔도 양화가 집에 업슬ᄊᆡ를 엿보아 양화의 집에가셔 스례ᄒᆞ셧다ᄒᆞ니 쇼뎨는 실노 의혹ᄒᆞ는일이라 셜ᄉᆞ 양화로 쇼인이라 ᄒᆞᆯ진ᄃᆡ 션물ᄒᆞᆫ 고기는 곳 얼ᄋᆞᆯ지육이라 공ᄌᆞ가 집에 도라와 그션물ᄒᆞᆫ거슬 도로 보내는거시 올커ᄂᆞᆯ 밧아 먹으시고 그사ᄅᆞᆷ을 보기는 슬흔고로 집에업슬ᄊᆡ를 엿보아 회사ᄒᆞ셧스니 이것은 ᄯᅳᆨ긋치 잔샤ᄒᆞᆫ 사ᄅᆞᆷ의 일이라 ᄃᆞᆯ노 치는쟈의게 ᄃᆞᆯ노 갑흠이오 간계를 쓰는쟈의게 ᄯᅩᄒᆞᆫ간계를 ᄒᆡᆼᄒᆞᆷ

이니 덕으로써 악을 갑는일이 아니라 대셩인의 도리가 엇지 그러ᄒᆞ
시니잇가 진도 ᄃᆡ답ᄒᆞᆯ말이 업서 공연이 대노왈 요마ᄉᆞ麼ᄒᆞᆫ 쇼년少年
이넷젹셩인을 론란ᄒᆞ니 분명分明ᄒᆞᆫ ᄉᆞ문란젹 師門亂賊이로다 신텬옹이
흔연欣然이 우셔왈 텬하는 ᄒᆞᆫ집과ᄀᆞᆺ고 ᄉᆞ히 사ᄅᆞᆷ은 다 형뎨라 형쟝
은 공연히 노ᄒᆞᆯ거시아니라 쇼뎨의 말ᄉᆞᆷ을 드르쇼셔 사ᄅᆞᆷ이 셰샹에나
명 산 셩 경
때 만물보다 ᄀᆞ쟝귀ᄒᆞᆫ거슨 하ᄂᆞ님씌셔 령혼을 주심이라 그런고로 능
히 션악과 진가를 분별ᄒᆞ며 삼강오샹 三綱五常의 리치와 텬디만물의
리력과 싱젼에 당연히ᄒᆞᆯ 본분이 무어시며 ᄉᆞ후에 령혼이 엇더케 되
ᄂᆞᆫ거슬 아ᄂᆞ니 하ᄂᆞ님의 도학을 아지못ᄒᆞ고 다만 셰샹일만 침작 ᄒᆞ
ᄂᆞᆫ쟈는 문견이 고루ᄒᆞᆷ을 면치 못ᄒᆞᄂᆞ이다 진도쳥파에 얼골빗출 변ᄒᆞ
경
여 글ᄋᆞ딕 그ᄃᆡ의말을 드른즉 불문가지不問可知 셔국교를 존숭尊崇ᄒᆞ
ᄂᆞᆫ 사ᄅᆞᆷ이로다 나도 셔국 예수교의 말을 드럿거니와 허탄ᄒᆞ고 밍랑
ᄒᆞᆫ 리치밧게말이 만흔지라 ᄌᆞ공이글ᄋᆞ딕 공ᄌᆞ씌셔 셩픔과 텬도를 의
론ᄒᆞ심은 듯지 못ᄒᆞ엿다ᄒᆞ고 ᄌᆞ로죽ᄂᆞᆫ거슬 뭇ᄌᆞ온ᄃᆡ 공ᄌᆞ글ᄋᆞ샤ᄃᆡ 네

가 사ᄂᆞᆫ리치도 모로거든 엇지 죽ᄂᆞᆫ거슬 알니요 ᄒᆞ셧스니 하ᄂᆞᆯ도와
죽ᄂᆞᆫ거슨 광ᄌᆞ도 말ᄉᆞᆷᄒᆞ신곳이 업거ᄂᆞᆯ 뉘가능히 하ᄂᆞᆯ도를알며 텬당과
디옥은 뉘가보앗ᄂᆞ뇨 예수가 하시ᄂᆞ님의 아ᄃᆞᆯ이란 말브터 허황ᄒᆞᆫ말이라
하ᄂᆞ님이 사ᄅᆞᆷ이 아니어ᄂᆞᆯ 엇지아ᄃᆞᆯ이 잇스며 유태국에 나신거슨 뉘
가 젹실히 아ᄂᆞ뇨 그ᄃᆡ깃흔 쇼년은 침혹ᄒᆞ기 쉽거니와 지각 잇ᄂᆞᆫ사
ᄅᆞᆷ과 글을 낡은 션비들이야 뉘가 그싸진 허탄ᄒᆞᆫ일과 리치 밧게말을
밋으리오 신텬옹이 공경ᄃᆡ왈 션싱이 리치밧기라 말ᄉᆞᆷᄒᆞ시니 물고기와
날즘싱의 색기치ᄂᆞᆫ 리치를 아시ᄂᆞ닛가 진도왈 비죠飛鳥와 슈족水族이
다 란육卵育ᄒᆞᄂᆞᆫ거시라 ᄒᆞ노라 신텬옹이 답왈 각식 비죠들이 다
알노 식기를치되 학鶴이란새는 ᄃᆡ胎로 ᄌᆞ식을 낫코 물고기가 다 알
을 슈쵸水草에 스러 젹은 고기들이 알쇽에셔 나아올ᄯᅢ에 어미된 고
기가 그 ᄌᆞ식과 샹관이 업거ᄂᆞᆯ 그즁에 고래라 ᄒᆞᄂᆞᆫ고기는 그 ᄌᆞ식
을 ᄃᆡ로낫코 ᄯᅩᄒᆞᆫ ᄌᆞ식을 대단히 고호顧護ᄒᆞ야 사ᄅᆞᆷ이 만일 그 ᄌᆞ
식을 잡고져ᄒᆞ면 제몸이 죽어도 긔여히 그 ᄌᆞ식을 해치 못ᄒᆞ게ᄒᆞᄂᆞ

너 션싱은 다만 ᄒᆞᆫ가지만 아ᄂᆞᆫ고로 학과 고래의 조식나홈은 반ᄃᆞ시
리치밧기라 ᄒᆞ리로다 진도왈학을 태금胎禽 이라홈은 드럿거니와 고래
가 조식을 ᄃᆡ싱胎生홈은 처음듯ᄂᆞᆫ 말이라 ᄎᆞᆷ 그러ᄒᆞᆫ 리치가잇ᄂᆞᆫ뇨
신션옹이 ᄯᅩ 골ᄋᆞᄃᆡ 녜젹에 라위국사ᄅᆞᆷ이 셤라국에가 류람ᄒᆞᆯ시 셤라
왕을 보고 말ᄉᆞᆷᄒᆞ기를 우리나라는 구십월을 당ᄒᆞ면 강물이 유리ᄀᆞᆺ치
되고 ᄃᆞᆫᄃᆞᆫᄒᆞ여 그우흐로 사ᄅᆞᆷ과 거마가 륙디ᄀᆞᆺ치 ᄃᆞᆫ닌다ᄒᆞ니 셤라왕
이 밋지아니ᄒᆞ야 골ᄋᆞᄃᆡ 물의셩품은 근본 유ᄒᆞ야 사ᄅᆞᆷ이 셔지거ᄂᆞᆯ
엇지 륙디ᄀᆞᆺ치 ᄃᆞᆫᄃᆞᆫᄒᆞᆫ 리치가 잇스며 인마人馬가 ᄃᆞᆫ니리오 보지도
못ᄒᆞᆫ일이오 듯지도 못ᄒᆞᆫ말이라 ᄒᆞ엿스니 이거슨 열ᄃᆡ근쳐熱帶近處에
싱쟝ᄒᆞᆫ 사ᄅᆞᆷ이 다만 일긔의 더운것만 보고 ᄅᆡᆼᄃᆡ근ᄃᆡ 冷帶近地에 치
운일긔를 아지못홈이라 그런고로 여ᄅᆞᆷ의 벌너지ᄂᆞᆫ 어름을 말ᄒᆞᆯ수업고
우물밋헤 ᄀᆡ고리ᄂᆞᆫ 하ᄂᆞᆯ이 젹다ᄒᆞᄂᆞ니 졍히 션싱을 ᄀᆞᄅᆞ쳐 말ᄉᆞᆷ 홈
이로다 몃십년젼에 션싱이 만일 셔양졔국에 드러가 뎐보학을 졸업ᄒᆞ
고 도라와 우리의게 말ᄉᆞᆷᄒᆞ기를 ᄐᆞᆯ샤ᄒᆞᄂᆞᆫ만 광즁에 ᄆᆡ고보면 말리밧

괴 소식을 삽시간에 통ᄒᆞᆯ거시오 몃쳔리밧게 서로말ᄉᆞᆷ듯고 수작ᄒᆞ며
ᄐᆞᆯ샤가업시도 쇼식을 통ᄒᆞᄂᆞᆫ 법이잇다 ᄒᆞ면 우리가 션싱의 말ᄉᆞᆷ을
밋으릿가 반ᄃᆞ시 반ᄃᆡᄒᆞ되 쳔리마가 잇ᄃᆡ래도 쳔리밧게일은 ᄒᆞ로만에
통ᄒᆞᆯ거시오 사ᄅᆞᆷ이 ᄇᆡᆨ보밧게셔도 말을 서로 듯기어렵거든 엇지 말리
에소식을 삽시간에 알며 쳔리밧게 말ᄉᆞᆷ을 셔로드르리오ᄒᆞ야 밋지아일
지니 그 리치가 잇다홈은 ᄃᆞᆫ보학 공부ᄅᆞᆯ 졸업홈이요 그 리치가 업
다홈은 ᄃᆞᆫ보션과 ᄃᆞᆫ화긔를 보지못ᄒᆞᆫ 연고라 오ᄂᆞᆯ날 션싱이 ᄃᆞᆫ당디옥
이업다ᄒᆞ며 독싱셩즈 예수그리스도가 업다홈이 엇지 ᄃᆞᆫ보학을 모로고
령통홈이 리치 밧기라홈과 무엇시 다르리요 셩경에 골ᄋᆞ샤ᄃᆡ 셰상사
ᄅᆞᆷ의 지혜로 능히 하ᄂᆞ님의 오묘ᄒᆞᆫ 리치를 알지못ᄒᆞᆫ다 ᄒᆞ셧ᄂᆞ니 미
묘ᄒᆞᆫ ᄃᆡ경에는 셩인도 오히려 아지못ᄒᆞᆯ지라 광즈가 비록 하ᄂᆞ님쎄셔
내신셩인이나 하ᄂᆞᆯ도와 죽ᄂᆞᆫ거슬 아지못ᄒᆞ심이 변고가 아니어ᄂᆞᆯ 광즈
가 그ᄅᆞ치신곳시 업다ᄒᆞ여 셔국교의 ᄃᆞᆫ당디옥지셜이 도모지 허황ᄒᆞ다
홈은 춤 어리셕은 필부匹夫의 어두온 슈쟉이라 유태국 셤지쟈와 희리

너셩현들은 몃빅년 후셰스를 본것굿치 말솜ᄒᆞ며 하ᄂᆞ님이 부르샤 쳔
히 계명을 주신쟈도 잇거ᄂᆞᆯ 편벽되고 고루ᄒᆞᆫ 문견으로 허탄ᄒᆞᆫ 말솜
이라 ᄒᆞᆯ거시아니오 텬당디옥을 뉘가 보앗ᄂᆞ냐 ᄒᆞ심은 더욱어리셕은
말솜이라、우리셩경에 분명히 말솜ᄒᆞᆫ거슨 고샤ᄒᆞ고 유셔로 말솜ᄒᆞᆯ지라
도 삼후지텬 三后在天 이라ᄒᆞ고 문왕쳑강 文王陟降이 지뎨좌우 在帝
左右라 ᄒᆞ엿스니 문왕의 덕힝이 놉흐샤 그 령혼의 쳑강ᄒᆞ심이 상뎨
좌우에 계시다 홈이라 상뎨 계신곳시 엇지 텬당이 아니오며 걸쥬桀
紂굿흔 님군의 령혼이 샹뎨좌우에 쳑강ᄒᆞ다홈은 업스오니 악ᄒᆞᆫ쟈가
텬당에 가지못홈은 가히알거시오 또ᄒᆞᆫ 텬당이 잇ᄂᆞᆫ줄 밋으면 디옥이
잇ᄂᆞᆫ거슨 ᄌᆞ연이 알거시라 밋스를 눈으로본후에 밋음진ᄃᆡ ᄌᆞ긔조상도
업다홈이올코 후셰에 유교를 존숭ᄒᆞᄂᆞᆫ쟈 공밍ᄌᆞ를 업다ᄒᆞ며 불교를
밋ᄂᆞᆫ쟈 셕가여ᄅᆡ가 업다ᄒᆞ며 션술을 비호ᄂᆞᆫ쟈 황뎨와 로ᄌᆞ를 업다홈
이 올흘지라 후세사ᄅᆞᆷ들이 다만 녜젹 셩현의 글과 힝젹을보고 그
셩현이 졔상에 잇던줄을 밋ᄂᆞᆫ거슨 동셔양사ᄅᆞᆷ이 일반이라 엇지 눈으

로 그 셩인의 얼골을 뵈온후에 밋으리오 사ᄅᆞᆷ의 령혼이 육신에 잇
실ᄯᅢ에 살아ᄃᆞ니며 말솜도ᄒᆞ고 일을 경영ᄒᆞᄂᆞ니 령혼의 형톄를 볼수
업시나 분명히 아ᄂᆞᆫ것은 보지못ᄒᆞᄂᆞᆫ숭에 잇심너다 우리셩경에 ᄀᆞᆯ으ᄃᆡ
예수씨는 하ᄂᆞ님의 독싱셩ᄌᆞ라 ᄒᆞ엿스오며 구셰쥬 ᄀᆞᆯ으샤ᄃᆡ 나를 보
지아니ᄒᆞ고 밋ᄂᆞᆫ쟈는 복을 더 밧으리라 ᄒᆞ셧시니 이제 션싱도 보지
못ᄒᆞᄂᆞᆫ즁에 하ᄂᆞ님이 계시고 텬당 영복과 디옥 고초도 보지 못ᄒᆞᄂᆞᆫ
ᄃᆡ 잇ᄂᆞᆫ줄 밋으시면 복을 만히 밧으실가 ᄒᆞᄂᆞ이다 진도 청파에 묵
묵히 ᄃᆡ답지안커ᄂᆞᆯ 빅운과 원각이 ᄀᆞᆯ으ᄃᆡ 신텬옹의말솜이 졀당 ᄒᆞ시
도다 사ᄅᆞᆷ의 지혜라 ᄒᆞᄂᆞᆫ거시 임의 보ᄂᆞᆫ리치를 미루어 보지못ᄒᆞᄂᆞᆫ
리치ᄭᅡ지 아ᄂᆞᆫ거시 만물즁에 귀ᄒᆞᆫ줄노 밋ᄂᆞ이다 신텬옹이 또 ᄀᆞᆯ으ᄃᆡ
진션싱은 죵시ᄭᅡ지 못ᄒᆞ나잇가 스마군실의말에 ᄀᆞᆯ으ᄃᆡ 텬당은 착ᄒ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셜시ᄒᆞᆫ거시오 디옥은 악ᄒᆞᆫ사ᄅᆞᆷ을 인ᄒᆞ여 셜립ᄒᆞᆫ 곳시
라 ᄒᆞ엿시니 스마온공은 유도를 힝ᄒᆞᄂᆞᆫ 션비로되 당옥이 잇ᄂᆞᆫ거슬
짐쟉 ᄒᆞ엿거ᄂᆞᆯ 진션싱의 고명 ᄒᆞ심으로 엇지 의심 ᄒᆞ시나닛가 진도

왈 만일 련당이 령령무의ᄒᆞ게 잇슬진ᄃᆡ 뉘가 그곳에 가기를 원치아
니리오 몬져 그ᄃᆡ의게잇는 셩경을 보기원ᄒᆞ노라 원각이 ᄀᆞᆯ으ᄃᆡ 련당
과 ᄃᆡ옥은 분명이 잇는거시라 쇼승은 아는거시 업거니와 부쳐님의
말솜과 불경리치를 불진ᄃᆡ 엇지 당옥이 업다ᄒᆞ리오 신련옹이 ᄀᆞᆯ으ᄃᆡ
대ᄉᆞ는 이왕에 불교를 슝상ᄒᆞ기로 련당ᄃᆡ옥이 잇슴을 밋거니와 능히
불교의 허무함을 ᄇᆡ리고 예수교의 진실함을 좃치릿가 소ᄉᆞ최죽 蔬食
菜粥과 고량옥식 膏粮玉食이 다ᄀᆞᆺ치 음식이로ᄃᆡ 귀쳔과 미악美惡이
잇ᄂᆞ니 옥식을 만나지못 ᄒᆞ여셔는 초식을 먹으려ᄂᆞ와 옥식을 보고도
의심ᄒᆞ여 먹지아니ᄒᆞ면 실노 어리셕은 사ᄅᆞᆷ의 지혜 업는일이라 대ᄉᆞ
의ᄯᅳᆺ시 엇더ᄒᆞ뇨 원각이답왈 부쳐님은 도ᄉᆞᆯ련궁 兜率天宮 회명보살
誨明菩薩이라 셰샹에 나려오샤 인도人道로 환싱 幻生ᄒᆞ시니 처음나실
ᄯᅢ에 ᄉᆞ대련왕 四大天王이 와셔 죠회ᄒᆞ고 구룡九龍이 물을 토ᄒᆞ여시
며 부쳐님이 나실ᄯᅢ에 ᄒᆞᆫ손으로 하ᄂᆞᆯ을 ᄀᆞᄅᆞ치며 ᄒᆞᆫ손으로 ᄯᅡ흘 ᄀᆞ
ᄅᆞ쳐글으ᄃᆡ 련샹련하에 오직 내가홀노 놉다 ᄒᆞ셧시니 셰샹에 엇지불

교보다 더큰도가 잇ᄉᆞ리오 쇼승은 불교가 음식중에 옥식으로 아나이
다 신련옹이 ᄀᆞᆯ으ᄃᆡ 조셩제인 子誠齊人이로다 ᄒᆞᆫ갓 불교의 광대허무
廣大虛無함을 밋고 진실ᄒᆞ고 거륵ᄒᆞ신 하ᄂᆞ님의도는 아지못함이로다
태초시에 이셰계가 업섯거ᄂᆞᆯ 하ᄂᆞ님씌셔 련디만물을 오일동안에 젼능
ᄒᆞ신 말솜으로 문득시고 뎨륙일에 사ᄅᆞᆷ을 문득샤 만물을 어거ᄒᆞ게ᄒᆞ
시며 그 즁에셔 의복음식을 조뢰케 ᄒᆞ셧시니 이셰샹은 당초브터 하
ᄂᆞ님이 조셩ᄒᆞ신 것이오 부쳐님도 이세샹이 싱긴후에 셰샹에 나신셩
인이라 하ᄂᆞ님씌셔 령혼육신과 총명지혜를 주샤 불도를 셜시케 ᄒᆞ신
지라 엇지 련샹련하에 조긔만 놉다ᄒᆞ야 하ᄂᆞ님씌 죄를 범ᄒᆞ엿ᄂᆞ뇨
또ᄒᆞᆫ 날ᄯᅢ에 이샹ᄒᆞᆫ 징조가 잇다함은 족히 조랑홀거시 업ᄂᆞ니 초楚
나라 고현苦縣사ᄅᆞᆷ 로빅양씨도 날ᄯᅢ에 좌우로 칠보七步를 힝ᄒᆞ엿시며
ᄒᆞᆫ손으로 하ᄂᆞᆯ을 ᄀᆞᄅᆞ치고 ᄒᆞᆫ손으로 ᄯᅡ흘 ᄀᆞᄅᆞ쳐 말ᄒᆞ되 련샹련하에
오직 도가 놉다 ᄒᆞ고 관령윤희도 날ᄯᅢ에 그집 륙디에 련쏫이 퓌여
빗치 션명 ᄒᆞ엿스니 비록 셩인이라도 쳐음날ᄯᅢ에는 말못ᄒᆞᄂᆞᆫ 으히여

놀 엇지 이러ᄒᆞᆫ 일이 잇스리오 다 허탄ᄒᆞᆫ 야셜이라 우리쥬 예수씌셔는 근본 하ᄂᆞ님의 삼위일톄三位一體되신 셩ᄌᆞ로 셰상에 강싱ᄒᆞ실ᄊᆡ에 셕가여릭 釋加如來ᄀᆞᆺ치 남녀가 교정홈으로 잉틱ᄒᆞᆫ 거시아니라 셩신씌셔 동졍녀마리아몸에 감동ᄒᆞ샤 스스로 잉틱 ᄒᆞ셧시며 탄싱ᄒᆞ시던 날 밤에무수ᄒᆞᆫ 텬스텬군이 하ᄂᆞᆯ노셔 나려와셔 하ᄂᆞ님의 영광을찬숑ᄒᆞ엿시며 동방에 박ᄉᆞ들은 별을보고 차ᄌᆞ와 졀ᄒᆞ며 보합寶盒을 열어 황금黃金과 유향乳香과 몰약沒藥을 례물노 밧쳣시니 엇지 셕가여릭의 비교ᄒᆞ리오 원각이 령파에 공경ᄃᆡ왈 불경에 글으ᄃᆡ 이셰상은 디슈화풍 地水火風네가지로 된거시라 당초에 보광마니 향슈히 寶光摩尼香水海에 죵죵광명 예향당 種種光明藥香幢이라 ᄒᆞᄂᆞᆫ쏫치 잇스니 그 쏫속에 무수ᄒᆞᆫ 셰계가 싱겻ᄂᆞᆫᄃᆡ 항하사 恒河沙모릭보다 더만흔지라 그즁에 사바娑婆셰계라ᄒᆞᄂᆞᆫ 셰상은 곳 우리의 사ᄂᆞᆫ셰계요 이셰계즁에 스대부쥬가 잇스니 동승신쥬 東勝身洲와 셔우화쥬 西牛貨洲와 남셤부쥬 南閻部洲와 북구로쥬 北瞿盧洲가 되엿고 우리에 사ᄂᆞᆫ디경은 남셤

부쥬에 쇽ᄒᆞᆫ지라 이셰계가 다 부쳐님에 도술노 되엿거ᄂᆞᆯ 엇지 하ᄂᆞ님이 창조ᄒᆞ다 ᄒᆞᄂᆞ잇가 신텬옹이 답왈 쇼뎨가 비록 불교의 리치를 모로거니와 그릭력을 의론ᄒᆞᆯ진ᄃᆡ 불조 셕가모니는 근본 가비라迦毗羅 국 위셩衛城 정반왕淨飯王의 아ᄃᆞᆯ이오 마야부인의 소싱이라 셕가는 씨족이오 모니ᄂᆞᆫ 일홈이니 인도印度국말노 능인젹묵 能仁寂默이오 ᄋᆞ 명은 실달悉達이며 별호는 교답마喬荅摩라 텬셩이 총명ᄒᆞ고 ᄆᆞ음이 청고ᄒᆞ야 태ᄌᆞ로 잇슬ᄊᆡ에 셰상영화가 그 ᄆᆞ음을 깃부게 못ᄒᆞ더니 ᄒᆞ로는 ᄀᆞᆯ문밧긔 나아갓다가 늙고 병든쟈를 만나매 홀연히 싱각ᄒᆞ되 이셰상은 도모지 괴롭고 더러운 허화시라 스름이 엇지ᄒᆞ면 긔질을 변화ᄒᆞ며 고초를 버셔나 륜회輪回즁에 ᄲᅡ지지 아니ᄒᆞ고 불싱불스ᄒᆞᄂᆞᆫ 디경에 니를ᄭᅳᆫ ᄒᆞ야 무슨묘법과 비결엇기를 ᄒᆞᆼ샹 싱각ᄒᆞ더니 이심구셰에 니르러 ᄯᅳᆺ을 결단ᄒᆞ야 부모쳐ᄌᆞ와 부귀영화를 ᄇᆡ리고 다라날ᄉᆡ ᄀᆞᆯ에셔 ᄒᆞᆫ걸인을 맛나 ᄌᆞ긔의 화려ᄒᆞᆫ 의복을 버셔주고 걸인의 남루ᄒᆞᆫ 옷슬 밧고와닙고 산즁으로 ᄃᆞ니며 스승을 구ᄒᆞᆯ시 ᄒᆞᆼ샹 음마니

팔이우 唵摩尼八爾吽라ᄒᆞ는 경문을 외오니 그ᄯᅳᆺ슬 번역ᄒᆞ면 곳 남무아미 타불이라 륙년동안에 공부를 독실히ᄒᆞᆯ시 점점 곡식을 먹지 아니ᄒᆞ야 ᄒᆞ로 쌀 ᄒᆞᆫ낫식 먹더니 ᄆᆞᆺ춤ᄂᆡ 유익ᄒᆞᆷ을 엇지못ᄒᆞᆫ지라 다시 궁즁에 도라가 태조 직분을 힝ᄒᆞᆯ가 ᄒᆞ더니 ᄯᅩ 싱각ᄒᆞ되 이거슨 다 셰샹유혹에 샌지는 망샹(妄想)이라ᄒᆞ고 보리슈 나모아래에 안쟈 쥬야로 ᄆᆞᆨᄆᆞᆨ히 싱각ᄒᆞ고 잠도자지 아니ᄒᆞ더니 홀연이 부쳐 되는처리를 씨ᄃᆞ라 ᄀᆞᆯ으ᄃᆡ 셰샹에 모든고난이 다 욕심즁에셔 좃ᄎᆞ옴이라 일톄욕심을 거졀ᄒᆞ야 ᄆᆞᆫ코 ᄆᆞᆨᄆᆞᆨ히 싱각ᄒᆞ며 ᄆᆞᄋᆞᆷ을 닥ᄂᆞᆫ거시 부쳐되는 근인(根因)이라 죄악을 ᄇᆞ리고 셰샹을떠나 공허젹멸空虛寂滅 ᄒᆞᆫ디경에 ᄂᆡ르면 영영히 륜회즁에 고난을 면ᄒᆞ고 부쳐가 될지니 하ᄂᆞ님의 권능도 쓸ᄃᆡ업ᄂᆞᆫ지라 싱각이 그디경에 ᄂᆡ르매 크게깃부고 샹쾌ᄒᆞ야 여러히 갓쳣던죄인이 일죠에 옥즁을 버셔남 ᄀᆞᆺᄒᆞᆫ지라 이에 불교를 창립ᄒᆞ야 도를 젼파ᄒᆞᆯ시 ᄉᆞ십오년동안에 일긔가 됴흔때는 륙십문도 로 더브러 ᄉᆞ방에 ᄃᆞ니며 젼도ᄒᆞ고 여름 장마때에는 절에잇셔 문도를

ᄀᆞᄅᆞ친지라 그후에 아란타阿蘭陀라 ᄒᆞ는데ᄌᆞ의게 의발衣鉢을 젼ᄒᆞ고 구시라 拘尸羅국에셔 젹젹히 도라갓다 ᄒᆞ니라 불교의 비결을 의론컨ᄃᆡ ᄉᆞ톄四諦와 팔진八眞과 삼귀三歸와 오계五戒가 잇ᄂᆞ니 ᄉᆞ톄는 사ᄅᆞᆷ이 셰샹에나매 항샹핍박과 고난을 밧ᄂᆞᆫ것과 사ᄅᆞᆷ의 고난이 졍욕을 인ᄒᆞ야 온것과 사ᄅᆞᆷ이 졍욕을 이긔면 열반涅槃에 근본이 되ᄂᆞᆫ것과 열반에 드러갈 사ᄅᆞᆷ마다 도를 닐운다 ᄒᆞᆷ이오 팔진은 불도를 밋ᄂᆞᆫ것과 집을떠나 졍욕을 거졀ᄒᆞᆷ과 ᄎᆞᆷ말노 불법을 외오ᄂᆞᆫ것과 ᄎᆞᆷ힉실노 즁노릇 ᄒᆞᄂᆞᆫ것과 ᄎᆞᆷ법으로 의식을 도모ᄒᆞᆷ과 ᄎᆞᆷ힉씀으로 육신을 이김과 ᄎᆞᆷᄆᆞᄋᆞᆷ으로 불결ᄒᆞᆷ을 ᄇᆞ림과 ᄎᆞᆷ륵샹ᄒᆞᆷ으로 ᄎᆞᆷ션법을 힝ᄒᆞᆷ이오 삼귀ᄂᆞᆫ 도라가 부쳐의게 의지ᄒᆞᆷ과 도라가 불법을 의지ᄒᆞᆷ과 도라가 즁의게 의지ᄒᆞᆷ이오 오계는 살인 ᄒᆞ지말며 도젹질 ᄒᆞ지말며 간음 ᄒᆞ지말며 거잣말 ᄒᆞ지말며 술을 마시지말나 ᄒᆞᆷ이라 ᄯᅩᄒᆞᆫ 불셔에ᄀᆞᆯ으ᄃᆡ 이졔샹이 태초에 십이풍륜 十二風輪으로 창조가 되엿스니 풍륜즁에 금목슈화토 오힝이잇고 풍륜우혜 칠금산 칠향슈 七金山七香水가잇고

향슈밧긔 텰위산 鐵圍山이잇고 텰위산밧긔 뎨팔 염히 鹽海가잇고 염
히가온딕 보광마니 향슈히 普光摩尼香水海가잇고 향슈가온딕 죵죵광명
예향당이란 ᄉᆞᆺ시잇고 ᄉᆞᆺ우헤 이십즁 화쟝찰히 華藏刹海가잇고 그즁에
뎨십삼층 남셤부쥬가 잇스니 곳이세계라 삼쳔대쳔셰계가 무슈히 만타
ᄒᆞᆫ지라 그러나 이셰계가 디슈화ᄒᆞᆼ으로되엿다ᄒᆞ니 ᄯᅡ와 물과 불과
바람은 당초에 어딕로 좃ᄎᆞ싱겻ᄂᆞ뇨 반ᄃᆞ시 내신이가 잇슬거시오 또
ᄒᆞᆫ 예향당이란ᄉᆞᆺ슨 아모권능과 지혜도업고 일ᄀᆡ무지ᄒᆞᆫ 초목이어ᄂᆞᆯ 엇
지 셰샹을 창조ᄒᆞᆯ 죠화가 잇스리오 이거슨 유도에 닐온바 무극이
태극을 싱ᄒᆞ고 태극이 량의을 싱ᄒᆞ고 량의가 ᄉᆞ샹을 싱ᄒᆞ야 음양
오힝의 리긔로 만물이 ᄌᆞ연히 싱기다ᄒᆞᆷ과 ᄀᆞᆺᄒᆞᆫ말이라 ᄌᆞ연이란말은
져졀노 된단말이니 셰샹에 엇지져졀노 될물건이 잇스리오 이제 집을
두고 의론 ᄒᆞᆯ지라도 벽돌과 쥬초와 동량棟梁과 창호가 다 져졀노되
야 빅셩들이 살게되엿다 ᄒᆞ면 뉘가 그말을 밋겟ᄂᆞ뇨 이제 텬디는
곳집과ᄀᆞᆺ고 강히산악과 일월셩신은 집안에 물건과 ᄀᆞᆺᄒᆞᆫ지라 반ᄃᆞ시

젼능ᄒᆞ신 조화쥬ᄭᅴ셔 창조ᄒᆞ심이 분명ᄒᆞᆫ것시라 부쳐님도 조화쥬ᄭᅴ 믄
ᄃᆞ심을 밧은 사ᄅᆞᆷ이여ᄂᆞᆯ 엇지 셰계를 ᄃᆞᆫ돌권능이 잇스리오 원각이
텽파에 놀나골ᄋᆞ딕 션싱의 다문박식파 고명ᄒᆞᆫ 말솜은 실노 탄복ᄒᆞ거
니와 감히엿줍노니 부쳐님은 당초에 사ᄅᆞᆷ이 아니오 도슐텬궁 兜率天
宮 회명보살 誨明菩薩노 비록 텬축국天竺國 졍반왕의 아ᄃᆞᆯ이 되엿스나
십년고힝으로 셩픔을 보고 도를ᄭᅴᄃᆞᄅᆞ 부쳐님이 되엿스니 텬샹텬하에
못ᄒᆞ실일이 업ᄂᆞᆫ지라 엇지 도슐이 업다ᄒᆞ리오 녜젹에 달마존쟈 達摩
尊者ᄂᆞᆫ 나무 표ᄌᆞ를ᄃᆞ고 수만리 창히를 건넛시며 셕가셰존은 죽엇다
ᄒᆞ나 관棺속에셔 발굼치를드러 죽지안님을 보이셧고 부쳐님 미간에
흰털이잇셔 빗치 동방 일만팔쳔 셰계에 빗최앗시며 십ᄒᆞᆯ방쟝十笏方丈
에 오쳔샤ᄌᆞ 獅子의 자리를 베푸럿고 코구멍에 능히 수미須彌산을
감초왓다 ᄒᆞ엿스니 사ᄅᆞᆷ이 부쳐가 되지못ᄒᆞᆷ으로 도슐을 힝치못ᄒᆞᆷ이라
부쳐님이 엇지 권능이 업스릿가 신텬옹이 ᄀᆞᆯ으ᄃᆡ 대ᄉᆞ의 말솜을 ᄃᆞ
르니 가위 굉쟝허무 轟莊虛無 ᄒᆞ도다 사ᄅᆞᆷ이 다만 말노만 힉ᄒᆞᆯ진ᄃᆡ

능히 태산을 엽헤씨고 북히바다도 건너쒸거시오 ᄒᆞ로 빅쳔번식 련당
에 올나갈지라 엇지그 허탄ᄒᆞᆫ 말만 밋으리오 우리쥬 예수씌셔는 코
구멍에 능히 슈미산을 감초는거슨 고샤ᄒᆞ교 ᄒᆞᆫ마듸 말솜으로 능히
이셰샹을 창조ᄒᆞ셧스니 그권능이 ᄒᆞᆫ마듸 말솜으로 셰계를 업서지게ᄒᆞᆯ
수도 잇는지라 스도요한의 복음에 글으듸 쥬의 힝젹을 낫낫치 긔록
ᄒᆞᆯ진듸 그칙을 ᄃᆞᆯ곳이 이셰샹이라도 부족ᄒᆞ리라 ᄒᆞ엿스니 예수씨의
긔힝 이젹은 한량업시만하 이로 긔록ᄒᆞᆯ수 업슴이라 그러나 이젹을
힝ᄒᆞᆷ으로 빅셩들이 복종ᄒᆞ면 거륵ᄒᆞᆫ도에 춤 리치를 아지못ᄒᆞᆯ가 렴려
ᄒᆞ샤 이젹은 ᄒᆞ샹 은밀히 힝ᄒᆞ시고 춤리치를 쥬쟝ᄒᆞ야 ᄀᆞ르치신지라
듸개 사ᄅᆞᆷ이 셰샹에 날때에 하ᄂᆞ님씌셔 령혼을 주샤 만물즁에 ᄀᆞ쟝
귀ᄒᆞ게 ᄒᆞ셧스니 만국만민의 큰 아바지시라 불가불 존경 ᄒᆞ실거시오
ᄯᅩᄒᆞᆫ 사ᄅᆞᆷ마다 부모가 잇슨후에 부정모혈父精母血노 육신이 싱겻스니
싱육ᄒᆞ신 은혜가 한량업는지라 불가불 효경ᄒᆞ교 봇양ᄒᆞ야 ᄌᆞ식의 직
분을 다ᄒᆞᆯ것시오 형뎨는 ᄒᆞᆫ부모의 혈육을밧아 동긔지인이라 불가불

우ᄋᆡ홀거시오 님군은 젼국빅셩을 다ᄉᆞ리는 뎨왕이요 우리의부모라 불
가불 충셩을 다ᄒᆞ야 셤길거시오 부부는 인륜의 비롯ᄒᆞᆷ이오 인싱빅년
에 아ᄅᆞᆷ다온 짝이라 불가불 환락ᄒᆞ야 ᄌᆞ긔몸ᄀᆞᆺ치 ᄉᆞ랑ᄒᆞᆯ거시오 ᄉᆞ히
안에 사ᄅᆞᆷ은 다형뎨와 ᄌᆞ미라 불가불 신의로 교졉ᄒᆞᆯ지니 이거슨 닐
은바 오륜삼강에도오 교금련디에 떳떳ᄒᆞᆫ 리치라 불교가 비록 크다ᄒᆞ
나 삼강오샹지도를 능히 힝치못ᄒᆞᄂᆞ니 엇지족히 대도라 칭ᄒᆞ리오 그
런고로 신라국 강슈라 ᄒᆞᄂᆞᆫ문쟝은 일셰에 유명ᄒᆞᆫ 달관이로듸 불교는
셰샹밧게교라 충샹 ᄒᆞᆯ거시업다 ᄒᆞ엿스니 인륜과 련륜을 좃ᄂᆞᆫ쟈는 힝
치못ᄒᆞᆯ교라ᄒᆞ노라 원각이 청파에 불열왈 션싱이 불경을 다보지 못ᄒᆞᆷ
이로다 은즁경에 말솜은 부모의 은공을 ᄀᆞ르쳔거시오 ᄯᅩᄒᆞᆫ 불셔에
글으듸 련듸는 날노더브러 동근同根이오 만물은 날노더브러 동포라
ᄒᆞ엿시니 불교가 지극히 착ᄒᆞᆷ으로 초목과 곤충昆虫ᄭᆞ지 살혜쳐 아니
커ᄂᆞᆯ 엇지륜샹의 도리가 업다ᄒᆞ리오 신련옹이 답왈대ᄉᆞ는 쇼뎨의말솜
을 ᄌᆞ셰히 드르시고 깁히 싱각ᄒᆞ여 보쇼셔 불교인들이 륙도륜회 六

度輪廻의 말슴을 헛되이 밋음으로 계견육축 鷄犬六畜의 고기를 먹지
아님은 조부모가 죽은후에 혹시 륙축이 되엿는가 의심홈이오
곤충서지 살해치 아님이라 엇지 어리셕지 아니리오 사름이 만물즁에
귀ᄒᆞ다홈은 특별히 허령지각이 잇슴이오 턴디간에 삼대륜이 잇스니
턴륜과 인륜과 물륜이라 불교인은 삼대륜을 아지못ᄒᆞ고 분별홀줄도
모르니 엇지 사름이라 ᄒᆞ며 엇지 종교라 ᄒᆞ리오 턴디가 날노 동근
이라ᄒᆞ니 턴디가 싱길때에 부쳐가 흠씩싱치 못ᄒᆞ엿거늘 엇지 동근이
라 ᄒᆞᄂᆞ뇨 이거슨 턴륜을 아지못홈이오 만물이나와 동포라ᄒᆞ니 사름
이엇지 초목금슈ᄃᆞ려 형뎨라 칭ᄒᆞ며 곤충어별 昆虫魚鱉ᄃᆞ려 ᄌᆞ미라
칭ᄒᆞ겟ᄂᆞ뇨 이거슨 인륜을 분별치못홈이라 엇지 가련치아니리오 원각
이 믁믁히 싱각ᄒᆞ다가 ᄊᆡᄃᆞ러깔ᄋᆞᄃᆡ 삼대륜의 리치를 ᄌᆞ셰히 ᄀᆞᄅᆞ치
쇼셔 신텬옹이답왈 턴륜과 인륜은 ᄎᆞᄎᆞ 말슴ᄒᆞ려니와 대뎌 물륜이라
홈은 초목금슈를 ᄀᆞᄅᆞ쳐 말홈이라 초목은 다만 싱혼生魂만잇서 음양
슈토 陰陽水土의 긔운으로 싱장ᄒᆞ다가 사름이 긔계로 버히면 아모

소리도업시 말나죽을 다름이로ᄃᆡ 각각 종류의 씨를좃차 무셩ᄒᆞᄂᆞᆫ거시
오 금슈는 다만 싱혼과 각혼覺魂이 잇ᄂᆞᆫ고로 주리면 먹을줄알고 마
지면 압흔줄 ᄊᆡᄃᆞ러 능히 소리도ᄒᆞ며 긔틀을보아 피화도 홀줄알되
오직 허령지각 虛靈知覺이 업ᄂᆞᆫ고로 학문샹에 진보가 업ᄂᆞᆫ니 오쟉烏
鵲의 집을두고 볼지라도 태고젹에 집짓던 모양과 지금시졀에 지은집
이 여일ᄒᆞ야 조곰도 진보된 거시업고 가마귀는 몃만년을 지나도 능
히 검은옷을 벗지못ᄒᆞ며 빅로는 몃쳔년을 샹젼ᄒᆞ되 능히 흰옷을 변
치못ᄒᆞᄂᆞ니 이거슨 하ᄂᆞ님씌셔 금슈를 내실때브터 그셩질을 이러케
마련 ᄒᆞ신거시니 이거슨 닐은바 물륜物倫이오 인륜은 하ᄂᆞ님씌셔 특
별히 사름의게 싱혼生魂과 각혼覺魂과 령혼靈魂을 주심으로 능히 턴
리와 디리도 ᄊᆡ드르며 이왕에 지나간 샹고젹과 금셰에 당연히 힝홀
직분과 릭셰에 어ᄃᆡ로 도라가ᄂᆞᆫ거슬 다 아ᄂᆞᆫ지라 사름의 사름됨이
대단히 존귀ᄒᆞᆫ거슨 우흐로 하ᄂᆞ님을 존경ᄒᆞ고 구셰쥬를 신봉ᄒᆞ야 턴
륜天倫의 리치를 슌종順從ᄒᆞ며 아래로 초목금슈와 곤충어별을 졔어ᄒᆞ

고 다스려 물륜의 리치를 궁구ᄒᆞ고 이셰샹에셔 부모의게 효경ᄒᆞ며
님군의게 충셩ᄒᆞ고 타인ᄉᆞ랑 ᄒᆞ기를 내몸과 ᄀᆞᆺ치ᄒᆞ야 오륜삼강에 도
리를 극진히 힝ᄒᆞ고 슈신제가 修身齊家와 치국평텬하 治國平天下에
ᄉᆞ업을 다ᄒᆞ며 ᄃᆡ셩來生의 령혼ᄭᅡ지 구원ᄒᆞ야 텬당복디에 무궁ᄒᆞᆫ 영
화를 밧ᄂᆞᆫ거시 사ᄅᆞᆷ의 당연ᄒᆞᆫ 직분이라 그러나 불교를 존승ᄒᆞᄂᆞᆫ 무
리들은 그러치 아니ᄒᆞ야 부모쳐ᄌᆞ와 형뎨ᄌᆞ미와 군신샹하를 일졔히
거졀ᄒᆞ야 헌신ᄀᆞᆺ치 ᄇᆞ리고 심산궁곡 深山窮谷에 불당과 암ᄌᆞ를 건츅
建築ᄒᆞ고 쥬야로 부쳐압헤 첨비ᄒᆞ며 아미타불 관셰음을 쉴ᄉᆡ업시 부
르고 ᄆᆞ음을 붉히며 셩픔을 본다ᄒᆞ야 참션參禪공부를 힘쓸ᄯᅢ에 사ᄅᆞᆷ
의 륜긔와 셰샹에 의리를 아조 니져ᄇᆞ리라 ᄒᆞᄂᆞ니 사ᄅᆞᆷ마다 불교를
힝ᄒᆞᆯ진ᄃᆡ 륜샹倫常이 ᄭᅳᆫ허지고 인죵이 민멸泯滅ᄒᆞᆯ지라 엇지다시 불교
인들 힝ᄒᆞᆯ사ᄅᆞᆷ이 잇스리오 대ᄉᆞ는 깁히셩각ᄒᆞ야 쓸ᄃᆡ업ᄂᆞᆫ 목셕으로
문ᄃᆞᆯ고 금은으로 단쟝ᄒᆞᆫ 우샹에게 합쟝비례 合掌拜禮ᄒᆞ지말고 광명졍
대 光明正大ᄒᆞ고 호호탕탕 浩浩蕩蕩ᄒᆞ신 하ᄂᆞ님의 츰 치리를 좃치쇼

셔 원각이 능히 답지못ᄒᆞᄂᆞᆫ지라 어언간於焉間에 일락셔산 日落西山ᄒᆞ
고 귀쵸투림 歸鳥投林ᄒᆞᄂᆞᆫᄃᆡ 원촌모옥遠村茅屋에 셕연夕烟이 너러나거
ᄂᆞᆯ 각각 ᄉᆞ관을차ᄌᆞ 도라올ᄉᆡ 명일 다시맛나기를 긔회ᄒᆞ엿스니 아지
못게라 이사ᄅᆞᆷ들에 슈작이 엇지되엿ᄂᆞᆫ고 하회를보라

詩

道士相逢性海深 도ᄉᆞ가 서로맛나매 셩히가 깁헛스니
靈臺臺上共論心 령ᄃᆡ샹에셔 ᄆᆞ음을 토론힛더라
末來四友同歸一 말ᄅᆡ에 네벗이 ᄒᆞᆫ곳에 도라갓스니
天路分明在福音 하ᄂᆞᆯ길이 분명히 복음에잇더라

그 잇흔날 평명에 네사ᄅᆞᆷ이 일졔히 령ᄃᆡ우헤 모히여 젼일에 미진ᄒᆞᆷ
회포를 각각 토론ᄒᆞᆯᄉᆡ 원각이 ᄀᆞᆯ으ᄃᆡ 작일에 신텬옹의 말ᄉᆞᆷ을 드른
후로 흉즁胷中에 모ᄉᆡᆨ茅塞ᄒᆞᆷ이 돈연히 열닌지라 쇼승이 지나간밤에
잠을 일우지못ᄒᆞ고 ᄆᆞᆨ ᄆᆞᆨ히 싱각ᄒᆞ온즉 륜샹倫常에 의리를 온젼히힝ᄒᆞ
고 능히 텬당ᄭᅡ지 드러가ᄂᆞᆫ 예수교회가 불교보다 쉬울듯 ᄒᆞᆫ지라 물
륜과 인륜에 리치ᄂᆞᆫ 임의드럿거니와 감히못잡ᄂᆞ니 텬륜의 리치ᄂᆞᆫ 엇

디ᄒᆞ니잇가 신텬옹이답왈 텬륜이라 홈은 하ᄂᆞ님의 거륵ᄒᆞ신 성톄와
신성ᄒᆞ신 셩품을 말ᄉᆞᆷ홈이라 하ᄂᆞ님쎄셔는 온젼히 능ᄒᆞ시고 지극히
거륵ᄒᆞ시며 무소부지 無所不知ᄒᆞ시고 무소부지 無所不在ᄒᆞ시며 독일무
이 獨一無二ᄒᆞ시고 무시무종 無始無終ᄒᆞ시샤 텬샹텬하에 못ᄒᆞ실일이
업스시며 사ᄅᆞᆷ의 싱젼ᄉᆞ후와 만물의 흥망셩쇠를 다쥬관 ᄒᆞ시ᄂᆞ니 셩
덕聖德과 공의公義와 인의仁愛와 ᄌᆞ비慈悲와 진리眞理가 계시고 젼능
全能즁에 셩긔聖氣와 무시종無始終과 유일惟一과 변지遍在와 불력不易
이 게신지라 그위를 말ᄉᆞᆷ홀진ᄃᆡ 셋시잇스니 셩부와 셩ᄌᆞ와 셩신이시
오 그뎨를 말ᄉᆞᆷ홀진ᄃᆡ ᄒᆞ나이시니 독일무이ᄒᆞ신 하ᄂᆞ님이시라 셩부쎄
셔는 텬디와 바다와 그가온ᄃᆡ 만유에 물건을 창조 ᄒᆞ신이시오 셩ᄌᆞ
쎄셔는 이셰샹에 강싱ᄒᆞ샤 무한ᄒᆞᆫ 고초를 밧으시고 십ᄌᆞ가十字架에
못박혀 죽으샤 홀너신피로 만국만민에죄를 ᄃᆡ쇽代贖ᄒᆞ신 미시아 彌賽
亞시오 셩신쎄셔는 이셰샹에 오샤 악ᄒᆞᆫ사ᄅᆞᆷ의 ᄆᆞ음을 감화感化ᄒᆞ야
션ᄒᆞ게 ᄒᆞ시며 어두운쟈의 ᄆᆞ음을 ᄇᆞᆰ게ᄒᆞ시고 어리셕은쟈의 셩정을

지혜롭게 ᄒᆞ시ᄂᆞᆫ 보혜ᄉᆞ 保惠師시라 셩ᄌᆞ예수쎄셔 십ᄌᆞ가에 죽으샤
장ᄉᆞᄒᆞᆫ지 데삼일만에 다시니러나샤 ᄉᆞ십일동안을 뎨ᄌᆞ의게 젼도ᄒᆞ신후
에 승텬ᄒᆞ샤 하ᄂᆞ님우편에 안ᄌᆞ계시다가 이셰샹말일에 무수ᄒᆞᆫ 텬ᄉᆞ를
거ᄂᆞ리시고 ᄌᆡ림再臨ᄒᆞ샤 만국만민에 션악을 심판審判ᄒᆞ시되 악ᄒᆞᆫ쟈는
디옥 불멸지화 不滅之火에 던지시고 션ᄒᆞᆫ쟈는 텬당락원 樂園으로 보
내샤 무궁ᄒᆞᆫ 쾌락을 밧게ᄒᆞ실지라 이거시 닐은바 텬륜이니 곳 하ᄂᆞ
님의 거륵ᄒᆞ신교회라 사ᄅᆞᆷ이 셰샹에 날ᄶᅢ에 령혼을 하ᄂᆞ님ᄭᅴ 밧앗스
니 당초에 사ᄅᆞᆷ도 텬륜으로 난거시어ᄂᆞᆯ 하ᄂᆞ님을 경비치 아님으로
텬륜을 모른다 ᄒᆞᄂᆞ니다 원각이 쳥파에 지삼칭션ᄒᆞ고 또골으ᄃᆡ 사ᄅᆞᆷ
이 션을힝홈으로 텬당에 올나감을 밋거니와 우리불교로 말ᄉᆞᆷᄒᆞ면 텬
샹션관도 복이다ᄒᆞ면 왕왕히 륜회즁에 ᄯᅥ러져 인간에 환싱ᄒᆞᆫ다 ᄒᆞ엿
거ᄂᆞᆯ 예수교말ᄉᆞᆷ은 텬당사ᄅᆞᆷ들은 영영히 복을밧ᄂᆞᆫ다 ᄒᆞ오니 과연이샹
ᄒᆞᆫ지라 ᄎᆞᆷ으로 예수씨말ᄉᆞᆷ과 ᄀᆞᆺ홀진ᄃᆡ 뉘가 밋지아니ᄒᆞ리오 이셰샹에
셔 유ᄌᆞ유손ᄒᆞ야 부부화락ᄒᆞ며 효경부모ᄒᆞ고 충군이국ᄒᆞ야 셰샹ᄌᆞ미를

다 힝ᄒᆞᄂᆞᆫ즁에 능히 령혼을 구원ᄒᆞ야 텬당에가고 ᄒᆞᆫ번 텬국에 드러
간후에 영영히 써러지지 아닐진ᄃᆡ 쇼승은 현현젹젹ᄒᆞ고 허허공공ᄒᆞᆫ
불교보다 예수를 밋ᄂᆞᆫ거시 됴흘가 ᄒᆞᄂᆞ이다 빅운이 겻헤잇서 량인의
슈쟉ᄒᆞᄂᆞᆫ 말솜을 셰셰히 드른지라 ᄒᆞᆫ연히 우서ᄀᆞᆯ으ᄃᆡ 사름이 션슉공
부를 련단ᄒᆞ야 환골탈ᄐᆡ 幻骨脫熊홈으로 능히 긔질을 변화變化ᄒᆞ면
일신이 경쾌輕快ᄒᆞ야 삽시간에 능히 쳔만리를 힝ᄒᆞᆯ거시오 텬샹텬하에
임의로 왕ᄅᆡᄒᆞ야 아츰에 십쥬삼산 十洲三山에 가셔놀다가 져녁에 능
히 방쟝봉ᄅᆡ 方丈蓬萊로 ᄃᆞᆫ닐거시오 도솔텬궁과 령산도쟝 靈山道場으
로 한가히 논닐지라 엇지 죽은후에 령혼이 텬당에 가ᄂᆞᆫ거슬 됴타ᄒᆞ
리오 신텬옹이 ᄀᆞᆯ으ᄃᆡ 션싱의말솜이 셰계 종교즁에 션도가 뎨일됴타
ᄒᆞ시니 신션이 모도 멋가지 등분이나 잇나잇가 빅운왈 션도를 슝샹
ᄒᆞᄂᆞᆫ쟈 벽곡법을 뎨일노알아 화식을 먹지아니ᄒᆞ고 도관을 차ᄌᆞ가 도
경을 공부ᄒᆞ며 산즁에 드러가 치약ᄒᆞ기를 일솜ᄂᆞᆫ쟈는 닐으ᄃᆡ 하등션
이라ᄒᆞ고 임의곡식먹기를 거졀ᄒᆞ고 긔질을 변화ᄒᆞ야 바람을 마시며

이슬을먹고 진루를 거졀ᄒᆞ야 환골탈ᄐᆡ가 되ᄂᆞᆫ쟈를 닐으ᄃᆡ 즁등션이라
ᄒᆞ고 환골탈ᄐᆡ가 될ᄲᅮᆫ아니라 신통ᄒᆞᆫ묘술이 잇서 삼산십쥬 三山十洲와
텬샹텬하에 임의로 쇼요ᄒᆞ며 빅쳔만년에 쟝싱불ᄉᆞ ᄒᆞᄂᆞᆫ쟈를 닐으ᄃᆡ
샹등션이라 ᄒᆞᄂᆞ이다 신텬옹이왈 쇼뎨는 아ᄂᆞᆫ거시 업거니와 일즉이
듯ᄌᆞ온즉 신션의 분별이 오등이잇스니 ᄀᆞᆯ으ᄃᆡ 귀션과 인션과 디션과
신션과 쳔션이라 션술을 홈모ᄒᆞ야 힝코져ᄒᆞ다가 죽은쟈를 닐으ᄃᆡ 귀
션이라ᄒᆞ고 인션과 디션은 인간에잇서 약이나 먹드러먹고 물외에 소
요ᄒᆞ야 션술을 공부ᄒᆞᄂᆞᆫ쟈요 신션은 능히 신묘지술을 통ᄒᆞ야 공즁에
비힝ᄒᆞ며 ᄃᆡ식 胎息법으로 단을일우ᄂᆞᆫ쟈요 텬션은 셩ᄃᆡ 聖胎를비여
몸에 빗치광명ᄒᆞ고 경쾌홀 지경에 니ᄅᆞ면 텬샹 션관들이 션학을 보
내여 텬샹락원으로 영접ᄒᆞ여 간다ᄒᆞᄂᆞ니 이거슨 다허탄ᄒᆞ고 밋을수
업ᄂᆞᆫ말이라 단약을 먹음으로 엇더케 긔질을 변화ᄒᆞ며 ᄯᅩᄒᆞᆫ 육신을
히탈解脫치 못ᄒᆞ고 엇지 쟝싱불ᄉᆞ ᄒᆞ기를 ᄇᆞᄅᆞ리오 션술을 비호다가
일우지 못홀ᄲᅮᆫ아니라 도로혀 해를밧은쟈 불쇼ᄒᆞ니 녯적에 죠션국 긔